

—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공청회  —

13:30 ~ 14:00	등록	
14:00 ~ 14:20	개회 및 인사말씀	정종철(교육과학기술부 미래인재정책관) 조남권(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14:20 ~ 14:50	주제 발표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이 영(육아정책연구소 소장)
14:50 ~ 15:00	휴식	
15:00 ~ 16:20	토론	좌장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전공 교수) <지정 토론자> 조부경(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황옥경(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김영명(서강어린이집 원장) 전호숙(예산유치원 원장) 김소영(동아유치원 교사) 조윤정(한전빛사랑어린이집 교사) 박영선(예담어린이집 학부모) 주혜연(보라유치원 학부모) <자유 토론자> 김명순(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이정옥(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6:20 ~ 16:5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50 ~ 17:00	폐회 및 마무리 말씀	

차례

발표.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제1절 누리과정 제정의 배경 및 특성	3
제2절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6

토론

조부경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35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42
김영명 서강어린이집 원장	51
전호숙 예산유치원 원장	55
김소영 동아유치원 교사	59
조윤정 한전빛사랑어린이집 교사	62
박영선 예담어린이집 학부모	68
주혜연 보라유치원 학부모	72

부록. 5세 누리과정 고시문('11. 9. 5)

제1절 5세 누리과정의 구성	77
제2절 5세 누리과정의 영역	78

❧ 「3, 4세 누리과정」 제정 TF ❧

구 분	이 름	소 속
위원장	이 영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위원	장명림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정옥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명순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정미라	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지성애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최혜영	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오선주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장학관
	이원선	(재)한국보육진흥원 기획홍보팀 팀장
	박명자	창녕유치원장
	이회현	예담어린이집 원장
	박영란	동아유치원장
이인혜	현대열린어린이집 원장	
부처 간사	안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장학관
	오경미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교육연구사
	장윤정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교육연구사
	신옥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서기관
	박성원	보건복지부 보육지원과 사무관
	이성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주무관



발표.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제1절 누리과정 제정의 배경 및 특성

- I. 누리과정 제정의 배경 및 절차
- II. 「3, 4세 누리과정」 제정의 특성

제2절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 I. 구성방향 및 목적과 목표
- II. 편성·운영의 중점
- III.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각 영역별 내용

제1절 누리과정 제정의 배경 및 특성

I. 누리과정 제정의 배경 및 절차

정부는 2011년 5월 2일, 취학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만 5세 공통과정」¹⁾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만 5세 공통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 관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5세 누리과정」으로 통합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5세 유아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2012년 3월부터 시행되는 5세 누리과정에 이어 2013년에는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한다는 「3·4세 누리과정 도입 계획」이 발표되었다. 「3·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2013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3~4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학부모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었다. 지원단가도 2013년 22만원부터 시작해 만 5세와 동일하게 매년 인상하여 2016년에는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3·4세 누리과정」 확대 지원을 위하여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9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3·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생애초기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만 3~4세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5세 누리과정」 제도를 도입하면서 「5세 누리과정」 공통과정을 제정·고시한 바 있으며, 2013년 3월부터 3, 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5세 누리과정」과 연계한 「3, 4세 누리과정」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위탁으로 육아정책연구소는 2013년 3월부터 「3, 4세 누리과정」 제정을 위한 TF를 운영하였다. 본 TF는 육아정책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담당관,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학계, 교원, 전문직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었다.

「3, 4세 누리과정 제정 TF」는 지난 3월부터 총 14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공동작업을 하여 「3, 4세 누리과정」 1차 시안을 개발하였으며, 이후 초등교육 및 영아발달 전문가,

1) 「만 5세 공통과정」은 명칭공모를 통하여 2011년 7월 14일 「5세 누리과정」으로 공포됨. 「5세 누리과정」은 만 5세아에게 제공되는 '무상교육·보육 제도'인 동시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통합한 과정'으로 하나의 명칭을 다른 의미로 함께 사용함. 이하 만 5세 공통과정을 「5세 누리과정」으로 통칭함.

특수교육 전문가와 국어학자의 윤문을 거쳐 오늘 발표하는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II. 「3, 4세 누리과정」 제정의 특성

이번에 마련된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총론 내용 강화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에서는 총론의 구성체계와 내용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즉, 5세 누리과정에서 제시했던 기본·구성 방향, 목적, 목표 외에 편성·운영, 교수·학습 방법, 평가 부분을 총론에 포함시켜 국가수준의 공통과정의 형식을 갖추하고자 하였다.

2. 5세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과 구성틀 유지

「3, 4세 누리과정」의 영역과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현장 착근을 위하여 금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5세 누리과정」의 기본 구성 방향과 구성틀을 가능한 유지하였다. 따라서,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 구성과 내용 범주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단, 전체적인 체계와 맥락을 고려하여 필요시 내용의 명칭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하였으며, 5세와 3, 4세간의 차별성 및 난이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세부 내용을 일부 조정하였다. 따라서 본 「3, 4세 누리과정」 제정을 통해 「5세 누리과정」의 부분적인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어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누리과정을 완성하였다.

3. 영역별 목표 제시 및 연령별 내용 구성

「3, 4세 누리과정」은 5개 영역별로 3, 4, 5세를 동일한 목표로 제시하고, 내용은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하였다. 단, 3, 4, 5세 3개 연령별로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3~5세 유아의 발달 특성상 연령별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3~5세 연령에서 공히 다루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3~4세, 4~5세, 3~5세를 동일하게 제시한 경우도 있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에서 학령군별 목표는 동일하게 설정하고, 학년별 내용은 수준별로 제시하고 있는 학령군 교육과정의 성격과 형식을 취한 것이다.

*

4. 기본생활습관과 인성교육 강조

「5세 누리과정」에 이어 3, 4세 누리과정 제정에서도 질서, 배려, 협력 등의 기본생활 습관과 인성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국가·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녹색성장교육, 인터넷·미디어 중독예방교육 등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5.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 고려

「3, 4세 누리과정」은 「5세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하위 연령대인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체계화하였다.

제2절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I. 구성 방향 및 목적과 목표

1. 구성 방향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가.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 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전인발달을 이루도록 구성한다.
- 다.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 라. 만 3~5세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한다.
- 마.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목적과 목표

가. 목적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목표

- (1)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 (2)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
- (3)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4)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 (5)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II. 편성·운영의 중점

1. 편성

- 가. 1일 3~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 나. 5개 영역의 내용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편성한다.
- 다. 유아의 발달 특성 및 경험을 고려하여 놀이를 중심으로 편성한다.
- 라. 반(학급)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편성한다.
- 마. 성별, 종교,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이 없도록 편성한다.
- 바. 일과 운영 시간에 따라 심화 확장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2. 운영

- 가.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 나. 실내·외 환경을 다양한 흥미 영역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다. 유아의 능력과 장애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 라. 부모와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 마.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 바. 교사 재교육을 통해서 교육·보육 활동이 개선되도록 운영한다.

3. 교수·학습 방법

- 가. 놀이를 중심으로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나. 유아의 흥미를 중심으로 활동을 선택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 다. 유아의 생활 속 경험을 소재로 하여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습득하도록 한다.
- 라. 유아와 교사, 유아와 유아,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마.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바. 실내·실외활동, 정적·동적활동, 대·소집단활동 및 개별활동, 휴식 등이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사. 개별 유아의 관심과 흥미, 발달이나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유아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학습하도록 한다.

4. 평가

가. 누리과정 운영 평가

- (1) 누리과정의 운영 내용이 5개 영역을 균형있게 통합적으로 편성·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2) 누리과정의 운영 내용 및 활동이 유아의 발달수준과 흥미·요구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 (3) 교수·학습 방법이 유아의 흥미와 활동의 특성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 (4) 교육·보육 환경이 유아의 발달특성과 활동의 주제, 내용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5) 계획안 분석, 수업 참관 및 모니터링, 평가척도,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6) 누리과정 운영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이후 누리과정 편성·운영에 활용한다.

나. 유아 평가

- (1) 누리과정 목표와 내용에 근거하여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한다.
- (2) 유아의 지식, 기능, 태도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3) 유아의 일상생활과 누리과정 활동 전반에 걸쳐 평가한다.
- (4) 관찰, 활동 결과물 분석, 부모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 (5) 유아평가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 및 부모 면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Ⅲ.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각 영역별 내용

1. 신체운동·건강

가. 목표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 (1) 감각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 (2) 신체를 조절하고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른다.
- (3) 신체 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 (4)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 (5)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나. 내용 체계

내용 범주	내용
신체인식하기	감각능력 기르고 활용하기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신체조절하기
	기본운동하기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자발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바깥에서 신체활동하기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하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몸과 주변을 깨끗이하기
	바른 식생활하기
	건강한 일상생활하기
	질병 예방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놀이하기
	교통안전 규칙 지키기
	비상 시 적절히 대처하기

다. 세부내용

내용 범주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5세 누리과정 부분 개정(안)	5세 누리과정 (11. 9. 5)
	3세	4세		
신체 인식 하기	감각적 차이를 경험한다. 감각적 차이를 경험한다. 활용하기	감각적 차이를 구분한다. 여러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활용한다.	(식제) 감각으로 대상이나 사물의 특성과 차이를 구분한다. (위치이동) 여러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활용한다. (위치이동)	미세한 감각적 차이를 구분한다. 여러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활용한다. 감각으로 대상이나 사물의 특성과 차이를 인식한다.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	신체 각 부분의 명칭을 알고, 움직임에 관심을 갖는다.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움직인다.	신체 각 부분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움직인다.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움직인다.	신체 각 부분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움직인다.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움직인다.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 하기	신체균형을 유지해본다 공간, 힘, 시간 등의 움직임 요소를 경험한다.	다양한 자세와 움직임에서 신체균형을 유지한다. 공간, 힘, 시간 등의 움직임 요소를 활용하여 움직인다.	다양한 자세와 움직임에서 신체균형을 유지한다. 공간, 힘, 시간 등의 움직임 요소를 활용하여 움직인다. (위치이동)	신체균형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자세를 취한다.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을 조절한다.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을 조절해 본다	신체 각 부분을 활용하여 움직임을 조절한다.	신체 각 부분을 활용하여 움직임을 조절한다. (위치이동)	공간, 힘, 시간 등의 움직임 요소를 활용하여 운동한다.

내용 범주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5세 누리과정 부분 개정(안)	5세 누리과정 (11. 9. 5)
	3세	4세		
내용	눈과 손을 협응하여 소근육을 조절해 본다.	눈과 손을 협응하여 소근육을 조절해 본다.	눈과 손을 협응하여 소근육을 조절해 본다. (추가)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조작운동을 한다.
	걷기, 달리기 등 이동운동을 한다.	걷기, 달리기, 뛰기 등 다양한 이동운동을 한다. 체자리에서 몸을 다양하게 움직인다.	걷기, 달리기, 뛰기 등 다양한 이동운동을 한다. 체자리에서 몸을 다양하게 움직인다.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걷기, 달리기, 뛰기 등 다양한 이동운동을 한다. 체자리에서 다양한 운동을 한다.
신체 활동에 참여 하기	신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신체활동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신체활동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신체활동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신체활동에 참여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신체활동에 참여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운동능력의 차이를 이해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신체활동에 참여한다. (추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운동능력의 차이를 이해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운동능력의 차이를 존중한다.
신체 활동에 참여 하기	바깥에서 신체활동하기	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활동을 한다.	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활동을 한다.	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활동을 한다.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하기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을 한다.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을 한다.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을 한다.

내용 범주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5세 누리과정 부분 개정(안)	5세 누리과정 (11. 9. 5)
	3세	4세		
내용 범주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기	손과 이를 깨끗이 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주변을 깨끗이 한다.	손과 몸을 깨끗이 하는 습관을 기른다. 주변을 깨끗이 하는 습관을 기른다.	손과 몸과 이를 깨끗이 하는 습관을 갖는다. 주변을 깨끗이 하는 습관을 갖는다.
	바른 식생활하기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갖는다. 바른 태도로 식사한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몸에 좋은 음식을 알아본다.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식사에절을 지킨다.	적당량의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소중히 여긴다. 식사에절을 지킨다.
건강한 일상생활 하기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한다. 스스로 화장실에서 배변한다.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한다. 바른 배변습관을 기른다.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한다. 규칙적인 배변습관을 기른다.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한다. 바른 배변습관을 가진다.
	질병 예방하기	질병의 위험을 알고 주의한다. 날씨가 맞게 옷을 입는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날씨가 상황에 알맞게 옷을 입는다.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한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날씨와 상황에 알맞게 옷을 입는다.

내용 범주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5세 누리과정 부분 개정(안)	5세 누리과정 (11. 9. 5)
	3세	4세		
안전하게 놀이하기	안전한 놀이기구, 놀잇감, 도구를 안다. TV,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바르게 사용한다.	놀이기구나 놀잇감,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한다. TV,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바르게 사용한다.	놀이기구나 놀잇감,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한다. <u>TV,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바르게 사용한다.</u> (추가)	놀이기구나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한다.
	안전한 놀이장소를 안다. 교통안전규칙을 안다.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한다.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한다. 교통안전규칙을 알고 지킨다.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한다.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한다. 교통안전규칙을 알고 지킨다.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한다.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한다. 교통규칙을 지켜서 안전하게 다닌다.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한다.
비상 시 적절히 대처하기	재난 및 사고 등 비상 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안다. 학대, 성폭력, 유괴상황을 알고 도움을 요청한다.	재난 및 사고 등 비상 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한다. 학대, 성폭력, 유괴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한다.	재난 및 사고 등 비상 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한다. 학대, 성폭력, 유괴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한다.	재난 및 사고 등 비상 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안다. 학대, 성폭력, 유괴 상황을 알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안다.

2. 의사소통

가. 목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

- (1)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태도와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 (2)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능력을 기른다.
- (3) 글자와 책에 친숙해지는 경험을 통하여 글자 모양을 인식하고 읽기에 흥미를 가진다.
- (4) 말과 글의 관계를 알고 자신의 생각, 느낌, 경험을 글로 표현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나. 내용체계

내용 범주	내용
듣기	낱말과 문장 듣고 이해하기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
	바른 태도로 듣기
말하기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기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상황에 맞게 바른 태도로 말하기
읽기	읽기에 흥미 가지기
	책 읽기에 관심 가지기
쓰기	쓰기에 관심 가지기
	쓰기 도구 사용하기

다. 세부내용

내용 범위	내용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5세 누리과정 부분 개정(안)	5세 누리과정 (11. 9. 5)
		3세	4세		
듣기	<p>낱말과 문장 듣고 이해하기</p>	<p>낱말의 발음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p> <p>일상생활과 관련된 낱말과 문장을 듣고 뜻을 이해한다.</p>	<p>낱말의 발음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p> <p>일상생활과 관련된 낱말과 문장을 듣고 뜻을 이해한다.</p> <p>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다.</p>	<p>낱말의 발음에 관심을 가지고 비슷한 발음을 듣고 구별한다.</p> <p>다양한 낱말과 문장을 듣고 뜻을 이해한다.</p> <p>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다.</p>	<p>낱말의 발음에 관심을 가지고 비슷한 발음을 듣고 구별한다.</p> <p>일상생활과 관련된 낱말과 문장을 듣고 뜻을 이해한다.</p> <p>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다.</p>
	<p>이야기 듣고 이해하기</p>	<p>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p>	<p>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한다.</p>	<p>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한다.</p>	<p>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한다.</p>
말하기	<p>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p>	<p>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즐긴다.</p>	<p>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즐긴다.</p> <p>전래 동요, 동시, 동화를 듣고 우리말의 재미를 느낀다.</p>	<p>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즐긴다.</p> <p>전래 동요, 동시, 동화를 듣고 우리말의 재미를 느낀다.</p>	<p>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즐긴다.</p> <p>전래 동요, 동시, 동화를 듣고 우리말의 재미를 느낀다.</p>
	<p>바른 태도로 듣기</p>	<p>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듣는다.</p>	<p>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다.</p>	<p>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주의 깊게 듣는다.</p>	<p>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주의 깊게 듣는다.</p>
말하기	<p>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기</p>	<p>친숙한 낱말을 발음해 본다.</p> <p>새로운 낱말에 관심을 가진다.</p>	<p>친숙한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해 본다.</p> <p>다양한 낱말을 사용하여 말한다.</p>	<p>정확한 발음으로 말한다.</p> <p>다양한 단어를 사용하여 상황에 맞게 말한다.</p>	<p>정확한 발음으로 말한다.</p> <p>다양한 단어를 사용하여 상황에 맞게 말한다.</p>

내용 범주	내용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5세 누리과정 부분 개정(안)	5세 누리과정 (11. 9. 5)
		3세	4세		
	내용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단한 문장으로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단한 문장으로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양한 문장으로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양한 형태의 문장으로 말한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말한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말한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적절한 낱말과 문장으로 말한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적절한 단어와 문장으로 말한다.
	상황에 맞게 바른 태도로 말하기	주제를 정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주제를 정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주제를 정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주제를 정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이야기를 지어 말한다.	이야기를 지어 말한다.	이야기 지어 말하기를 즐긴다.	이야기 지어 말하기를 즐긴다.
	상황에 맞게 바른 태도로 말하기	듣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고려하여 말한다.	듣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고려하여 말한다.	듣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고려하여 말한다.	듣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고려하여 말한다.
		상대방을 바라보며 말한다.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차례를 지켜 말한다.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때와 장소, 대상에 알맞게 말한다.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때와 장소, 대상에 알맞게 말한다.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읽기	읽기에 흥미 가지기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본다.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본다.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 읽어 본다. (위치이동)	읽어 주는 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진다.
		읽어 주는 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진다.	읽어 주는 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진다.	읽어 주는 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 본다. (위치이동)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 읽어 본다.

내용 범주	내용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5세 누리과정 5세 누리과정 부분 개정(안)	5세 누리과정 (11. 9. 5)
		3세	4세		
쓰기	책 읽기에 관심 가지기	책에 흥미를 가진다. 책의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추측해 본다.	책 보는 것을 즐긴다. 책의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이해한다. 궁금한 것을 책에서 찾아본다.	책 보는 것을 즐기고 소중하게 다룬다. 책의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이해한다. (추기)	책 보는 것을 즐기고 소중하게 다룬다.
	쓰기에 관심 가지기	말을 글로 나타내는 것에 관심을 보인다. 자기 이름의 글자에 관심을 가진다.	말이나 생각을 글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안다. 자기 이름을 써 본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	말이나 생각을 글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안다. 자신의 이름과 주변의 친숙한 글자를 써 본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나 글자로 표현한다.	말이나 생각을 글로 옮길 수 있음을 안다. 자신의 이름과 주변의 친숙한 글자를 써 본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나 글자로 표현한다.
	쓰기 도구 사용하기		쓰기 도구에 관심을 가지고 사용해 본다.	(삭제) 쓰기 도구의 바른 사용법을 알고 사용한다.	여러 가지 쓰기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쓰기 도구의 바른 사용법을 알고 사용한다.

3. 사회관계

가. 목표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1)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자율성을 기른다.
- (2)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알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한다.
- (3)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며 서로 협력한다.
- (4) 친구, 공동체 구성원들과 서로 도우며 생활한다.
- (5) 지역사회와 우리나라 및 세계에 대하여 이해하며, 사회적 가치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나. 내용체계

내용범주	내용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기기
	나의 일 스스로 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표현하기
	나의 감정 조절하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가족과 협력하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지내기
사회에 관심 갖기	지역사회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우리나라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세계와 여러 문화에 관심 가지기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

다. 세부내용

내용 범주	내용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5세 누리과정 부분 개정(안)	5세 누리과정 (11. 9. 5)
		3세	4세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기기	나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나에 대해 알아본다.	나에 대해 알아본다.	나에 대해 알아본다.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에 관심을 갖는다.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나와 다른 사람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존중한다.	나와 다른 사람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인정한다.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	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	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	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표현하기	나의 일 스스로 하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 본다.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고 해 본다.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고 해 본다.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고 해 본다.
		자신에게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음을 안다.	자신의 감정을 알고 표현한다.	자신의 감정을 알고 표현한다.	자신의 감정을 알고 표현한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나의 감정 조절하기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을 갖는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공감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공감한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 본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 본다.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맞게 조절한다.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조절한다.
		가족의 소중함을 안다.	가족의 소중함을 안다.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안다.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안다.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가족과 사이좋게 지낸다.

내용 범주	내용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5세 누리과정 부분 개정(안)	5세 누리과정 ('11. 9. 5)
		3세	4세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가족과 협력하기	가족 구성원을 알아본다. 가족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본다.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가족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고 실천한다.	다양한 가족구조에 대해 알아본다.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할 수 있고 실천한다.	다양한 가족구조에 대해 알아본다. 가족은 서로 도와야 살아야 하는 것을 알고 실천한다.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친구와 함께 놀이한다. 나와 친구의 의견에 차이가 있음을 안다.	친구와 협동하며 놀이한다.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친구와 협동하며 놀이한다.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지내기	교사 및 주변 사람과 화목하게 지낸다.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는다. 교사 및 주변 사람과 화목하게 지낸다.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 협력한다. 교사 및 주변 사람과 화목하게 지낸다.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 협력한다. 교사 및 주변 사람과 화목하게 지낸다.
사회에 관심 갖기	지역사회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우리 동네의 이름을 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관심 갖는다.	우리 동네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 물건을 살 때 돈이 필요함을 안다.	우리 동네에 대해 알아본다. 다양한 직업에 관심을 갖는다. 일상생활에서 돈의 쓰임에 대해 안다.	우리 동네에 대해 알아본다. 다양한 직업에 관심을 갖는다. 일상생활에서 돈의 쓰임에 대해 안다.
	우리나라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알고 예절을 지킨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알고 예절을 지킨다.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와 풍습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와 풍습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와 풍습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전통, 역사,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

내용 범주	내용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5세 누리과정 부분 개정(안)	5세 누리과정 (11. 9. 5)
		3세	4세		
	세계와 여러 문화에 관심 가지기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해야 함을 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알아보고 존중한다.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해야 함을 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알아보고 존중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과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과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행동한다. (식제)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행동한다. 옳고 그름을 이해한다.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	약속과 규칙을 지켜야 함을 안다.	친구와 어른께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이나 공공규칙을 지킨다.	친구와 어른께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이나 공공규칙을 지킨다.	친구와 어른께 예절 바르게 행동한다.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이나 공공규칙을 지킨다.
			자연과 지원의 소중함을 안다.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아껴 쓰는 방법을 알아본다. (추가)	

4. 예술경험

가. 목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 (1) 자연과 주변 환경에서 발견한 아름다움과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탐색한다.
- (2)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음악, 움직임과 춤, 미술, 극놀이를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즐긴다.
- (3) 자연과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풍부한 감성과 심미적 태도를 기른다.

나. 내용체계

내용 범주	내용
아름다움 찾아보기	음악적 요소 탐색하기
	움직임과 춤 요소 탐색하기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
	가작화 요소 탐색하기
예술적 표현하기	음악으로 표현하기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하기
	미술 활동으로 표현하기
	극놀이를 표현하기
	통합적으로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	다양한 예술 감상하기
	전통예술 감상하기

다. 세부내용

내용 범위	내용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5세 누리과정 부분 개정(안)	5세 누리과정 (11. 9. 5)
		3세	4세		
아름다움 찾아보기	음악적 요소 탐색하기	다양한 소리, 음악의 쉼어림, 빠르기, 리듬 등에 관심을 갖는다.	다양한 소리, 음악의 쉼어림, 빠르기, 리듬 등에 관심을 갖는다.	다양한 소리, 악기 등으로 음악의 쉼어림, 빠르기, 리듬 등을 탐색한다.	다양한 소리, 악기 등으로 강약, 속도, 리듬 등을 탐색한다.
	움직임과 춤 요소 탐색하기	움직임과 춤의 모양, 힘, 빠르기 등에 관심을 갖는다.	움직임과 춤의 모양, 힘, 빠르기 등에 관심을 갖는다.	움직임과 춤의 모양, 힘, 빠르기, 흐름 등을 탐색한다.	움직임과 춤의 모양, 힘, 세기, 빠르기, 흐름 등을 탐색한다.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	자연과 사물의 색, 모양, 질감 등에 관심을 갖는다.	자연과 사물의 색, 모양, 질감 등에 관심을 갖는다.	자연과 사물에서 색, 모양, 질감, 공간 등을 탐색한다. (식재)	자연과 사물에서 색, 질감, 모양, 공간 등을 탐색한다. 여러 가지 재료와 도구를 자유롭게 탐색한다.
예술적 표현하기	가각화 요소 탐색하기	역할, 사물, 행동이나 상황 등 가각화 요소에 관심을 갖는다.	역할, 사물, 행동이나 상황 등 가각화 요소를 탐색한다.		
	음악으로 표현하기	간단한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른다.	노래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노래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노래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전래동요를 즐겨 부른다. 리듬악기로 간단한 리듬을 표현해 본다.	전래동요를 즐겨 부른다. 리듬악기를 연주해 본다.	전래동요를 즐겨 부른다. 리듬악기를 연주해 본다.	전래동요를 즐겨 부른다. 리듬악기를 연주해 본다.
	간단한 리듬과 노래를 추흥적으로 만들어 본다.	간단한 리듬과 노래를 추흥적으로 만들어 본다.	리듬과 노래 등을 추흥적으로 만들어 본다.	리듬과 노래 등을 추흥적으로 만들어 본다.	리듬과 노래 등을 추흥적으로 만들어 본다.

내용 범위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5세 누리과정 (11. 9. 5)
	3세	4세	
내용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하기	신체를 이용하여 주변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신체를 이용하여 주변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신체를 이용하여 주변의 움직임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움직임과 춤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움직임과 춤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춤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움직인다.
내용 미술 활동으로 표현하기	다양한 미술활동을 경험해 본다.	다양한 미술활동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협동적인 미술활동에 참여한다.	다양한 미술활동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협동적인 미술활동에 참여하여 즐긴다.
	미술활동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에 관심을 가지고 사용한다.	미술활동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다양하게 사용한다.	미술활동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다양하게 사용한다.
내용 극놀이를 표현하기	일상생활의 경험을 극놀이를 표현한다.	일상생활의 경험이나 간단한 이야기를 극놀이를 표현한다. 소품, 배경, 의상 등을 사용하여 협동적으로 극놀이를 한다.	경험이나 이야기를 극놀이를 표현한다. 소품, 배경, 의상 등을 사용하여 협동적으로 극놀이를 한다.
	통합적으로 표현하기	음악, 움직임과 춤, 미술, 극놀이 등을 통합하여 표현한다.	음악, 움직임, 미술, 극놀이를 통합하여 표현한다.

*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공청회

내용 범위	내용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5세 누리과정 (11. 9. 5)
		3세	4세	
예술 감상하기	다양한 예술 감상하기	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표현과정을 즐긴다. 다양한 음악, 춤, 미술작품, 극놀이 등을 듣거나 본다. 나와 다른 사람의 예술 표현을 소중히 여긴다.	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표현과정을 즐긴다. 다양한 음악, 춤, 미술작품, 극놀이 등을 듣거나 보고 즐긴다. 나와 다른 사람의 예술 표현을 소중히 여긴다.	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창의적인 표현과정을 즐긴다. 다양한 음악, 춤, 미술작품, 극놀이 등을 듣거나 보고 즐긴다. 나와 다른 사람의 예술 표현을 소중히 여긴다. 다른 문화의 예술작품에 관심을 가진다.
	전통예술 감상하기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에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에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는다.

5. 자연탐구

가. 목표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1) 주변의 사물과 자연 세계에 대해 알고자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태도를 기른다.
- (2) 생활 속의 여러 상황과 문제를 논리·수학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초 능력을 기른다.
- (3) 주변의 관심 있는 사물과 생명체 및 자연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기초능력을 기른다.

나. 세부내용

내용 범주	내용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탐구과정 즐기기
	탐구기술 활용하기
수학적 탐구하기	수와 연산의 기초개념 형성하기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형성하기
	기초적인 측정하기
	규칙성 이해하기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
과학적 탐구하기	물체와 물질 알아보기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
	자연현상 알아보기
	간단한 도구와 기계 활용하기

내용 범주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5세 누리과정 (11. 9. 5)
	3세	4세	
수와 연산의 기초개념 형성하기	생활 속에서 수에 관심을 갖는다. 구체물 수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한다.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안다. 구체물 수량에서 '같다', '더 많다', '더 적다'의 관계를 안다.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안다. 수량의 부분과 전체 관계를 안다.
	다섯 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어보고 수량을 알아본다. 갖는다.	열 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어보고 수량을 알아본다.	스무 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고 수량을 안다.
			구체물을 가지고 더하고 빼는 경험을 해 본다.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형성하기	나를 중심으로 앞, 뒤, 옆, 위, 아래를 알아본다.	위지와 방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본다.	위지와 방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본다.
	물체의 모양에 관심을 갖는다.		<u>여러 방향에서 물체를 보고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u> (추가)
		기본 도형의 특성을 인식한다. 기본 도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구성해 본다.	다양한 기본 도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한다. 기본 도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구성해 본다.
기초적인 측정하기	두 물체의 길이, 크기를 비교해 본다.	일상생활에서 길이, 크기, 무게, 틀이 등의 속성을 비교하고, 순서를 지어 본다.	일상생활에서 길이, 크기, 무게, 틀이, 시간 등의 속성에 따라 비교하고 순서를 지어 본다.

내용 범주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5세 누리과정 부분 개정(안)	5세 누리과정 (11. 9. 5)
	3세	4세		
내용	규칙성 이해하기	생활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성에 관심을 갖는다.	생활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성을 알고 다음에 올 것을 예측해 본다.	임의 측정 단위를 사용하여 길이, 면적, 들이, 무게 등을 재 본다.
		규칙성 이해하기	생활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성을 인식하고 모방한다.	생활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성을 알고 다음에 올 것을 예측해 본다.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자료를 모아본다.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한다.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한다.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한다.
	같은 것 끼리 짝을 짓는다.	한 가지 기준으로 자료를 분류해 본다.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자료를 다른 기준으로 재분류해 본다.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자료를 다른 기준으로 재분류해 본다.
물체와 물질 알아보기	친숙한 물체와 물질의 특성에 관심을 갖는다.	구체물이나 그림, 사진을 사용해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	그림, 사진, 기호나 숫자를 사용해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	그림, 사진, 기호나 숫자를 사용해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
	물체와 물질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다.	친숙한 물체와 물질의 특성을 알아본다.	주변의 여러 가지 물체와 물질의 기본 특성을 알아본다.	주변의 여러 가지 물체와 물질의 기본 특성을 알아본다.
과학적 탐구하기	나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나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나와 다른 사람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 알아본다. (워치이동)	관심 있는 동식물의 특성과 성장 과정을 알아본다.

내용 범주	내용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5세 누리과정 (11. 9. 5)
		3세	4세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관심 있는 동식물의 특성을 알아본다.	관심 있는 동식물의 특성과 성장 과정을 알아본다. (위치이동)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 생명체가 살기 좋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 생명체가 살기 좋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 생명체가 살기 좋은 환경과 녹색환경에 대해 알아본다.
자연현상 알아보기	돌, 물, 흙 등 자연물의 특성과 변화에 관심을 갖는다.	돌, 물, 흙 등 자연물의 특성과 변화를 알아본다.	돌, 물, 흙 등 자연물의 특성과 변화를 알아본다.	돌, 물, 흙 등 자연물의 특성과 변화를 알아본다.
	낮과 밤, 계절에 관심을 갖는다. 날씨에 관심을 갖는다.	낮과 밤, 계절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다. 날씨와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는다.	낮과 밤, 계절의 변화와 규칙성을 알아본다. 날씨와 기후변화 등 자연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추가)	낮과 밤, 계절의 변화와 규칙성을 알아본다.
간단한 도구와 기계 활용하기	생활 속에서 간단한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갖는다.	생활 속에서 간단한 도구와 기계를 활용한다.	여러 가지 재료로 간단한 놀이도구를 만들어 활용한다.	생활 속에서 간단한 도구와 기계를 활용한다.
		여러 가지 재료로 간단한 놀이도구를 만들어 활용한다.	여러 가지 재료로 간단한 놀이도구를 만들어 활용한다. (추가)	

내용 범위	내용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5세 누리과정 (11. 9. 5)
		3세	4세	
		도구와 기계의 편리함에 관심을 갖는다.	도구와 기계의 편리함에 관심을 갖는다.	변화하는 새로운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가진다.
				편리한 물건이 때로는 해가 될 수 있음을 안다.
				변화하는 새로운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갖고 장단점을 안다. (식제)



토론

조부경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김영명 서강어린이집 원장

전호숙 예산유치원 원장

김소영 동아유치원 교사

조운정 한전빛사랑어린이집 교사

박영선 예담어린이집 학부모

주혜연 보라유치원 학부모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에 대한 토론

조부경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시행된 5세 누리과정에 이어 2013년에는 이를 만 3~4세까지 확대한다는 「3·4세 누리과정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3월부터 「3, 4세 누리과정 제정 TF」를 구성, 운영하여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을 확정하였다. 짧은 기간 동안 14회에 달하는 집중 회의를 거쳐 만들어진 합의안을 보면서, 본 토론자는 무엇보다 먼저 관계하신 분들의 누리과정제정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서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유아교육, 보육 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하여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것은 그 세부내용의 적절성 논의 이전에 그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과 보육계의 대표자로 구성된 TF위원들이 고심하여 만든 합의안이기에 때문에, 본 토론자는 기본적으로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에 이견을 제시한다기보다는 그 자체를 존중하면서 누리과정에 대한 평소 생각과 몇 가지 의문점을 중심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1. ‘누리과정’의 정체성

5세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3, 4세 누리과정의 제정배경이나 제정(안)에서도 ‘누리과정’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이는 유아교육과 보육 계에서 지속되어 오던 ‘교육’과 ‘보육’,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그에 대한 합의점 도출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발제원고 첫 장의 제정 배경을 보면 「만 5세 공통과정」은...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5세 누리과정」으로 통합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5세 유아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또한 “.. 만 5세 아에게 제공되는 ‘무상교육·보육 정책’인 동시에 ‘만 5세 교육·보육과정’을 뜻함”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문구에서 본 토론자는 두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첫째는 ‘공통’, ‘통합’, ‘교육·보육과정’은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합집합을 의미하는가, 교집합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제 3의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교집합의 의미로 본다면, 누리과정의 내용은 표준보육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유치원교육과정의 내

용보다 줄어들어야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3, 4세 누리과정 제정 안의 내용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만일 합집합이라거나 전혀 새로운 제 3의 것이라면 그에 대한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3~5세 해당 부분)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그 안의 공통되는 부분은 교육인가, 보육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OECD Start Strong III 보고서(2012)에 누리과정은 Nuri Curriculum으로 소개되어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되어 있다. Curriculum의 우리말은 교육과정인데 그렇다면 누리과정은 교육과정이 아닌지, 만일 이것이 보육과정이라면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은 동의어인지?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의 누리과정 제정과정을 통해 명확하게 정립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다. '교육'과 '보육'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유아교육자와 보육관계자 간에 논란의 여지가 많고 자칫 보육,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면 영원한 평행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본 토론자는 개인적으로 보육은 교육(협의의 관점에서 보는 교육)과 돌봄이나 보호 및 양육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물론 광의의 관점에서의 교육은 보육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표준보육과정 제정 초기에 자연탐구영역 집필을 맡았을 때부터 본인은 보육과정이란 교육과정만이 아니라 보호와 양육에 해당되는 지원적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보육과정과 교육과정의 공통부분은 '교육'이며, 3, 4세 누리과정을 교육과정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각 각의 특성에 맞는 돌봄이나 보호 및 양육을 적절히 포함하여 교육이나 보육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토론자는 누리과정을 교육과정으로, 보육과정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더하여 보호 및 양육을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보육과정을 격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육과정 안에 교육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는 물론 본 토론자가 유아교육전공자이기 때문에 그 창을 통해 본 해석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인정하면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다음 번 개정 시에는 누리과정이 좀 더 정체성이 분명한 모습으로 성장·발전하기를 기대한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과 누리과정의 성격

2011년까지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에서 부담하였다. 누리과정제정으로 2012년부터 모든 만 5세 유아의 교육·보육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되고 있다. 또한 이번 3, 4세 누리과정이 제정되면, 지방교

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대상이 3, 4, 5세 전체가 된다. 이 시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살펴보는 것은 누리과정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 2011.1.1] [법률 제10221호, 2010.3.31, 타법개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 관련 일에 해당되는 재원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재원이 어린이집의 유아에게 지원된다는 것은 어린이집의 교육적인 특성을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보호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재원임은 5세 누리과정 정부 발표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5세 누리과정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 ‘교육’의 기간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물론 누리과정 도입으로 ‘의무’ 교육이 확대되었다고 보는 건 무리함이 있다. 왜냐하면 의무교육이라 할 경우 기본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데, 현재의 지원액만으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육, 보육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발표문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교육’이라는 점이다. 본 토론자는 ‘보육’이 아니라 ‘교육’의 기간 확대라는 문구가 보육의 중요성을 간과한다거나 제외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3. 총론 내용 강화 부분

5세 누리과정과 비교해 볼 때, 이번 3, 4세 누리과정에서 총론적인 성격의 내용을 강화하고자 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5세 누리과정에서 매우 아쉬웠던 부분 중 미약하나마 편성·운영, 교수·학습 방법, 평가 부분을 포함하였다는 것은 누리과정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형식을 갖추는 데에 한 걸음 전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체제를 맞추어 간다는 것이 누리과정의 특성 특히, 보육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평가절하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구성방향에서도 제시된 것처럼 누리과정이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자 한다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올바른 성장발달과 학습에 대한 국가 전체의 방향과 체제의 일관성을 갖추고자 하는 의미일 것이다.

이번 한 번의 과정을 통해 총론적인 내용이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유아교육자의 입장에서 보면,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에서 제정 특성의 하나로 제시된 ‘총론내용 강화’라는 문구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기 어렵다. 누리과정이 세

부내용에만 치중하고 전체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가치, 철학을 간과하고 있다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걸음마 단계인 아이에게 갑자기 걷기를 요구한다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남는 건 상처와 좌절감 뿐 입을 어느 집단보다 잘 인지하고 있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싶다.

4. 연령별 내용구성의 근거

3, 4세 누리과정의 내용은 연령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제정의 특성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했다기보다는 5세 누리과정이 먼저 제정됨에 따라 3, 4세도 그와 같은 맥을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본 토론자는 누리과정의 연령별 구성의 적절성 여부 보다는 연령별 내용구성의 근거가 모호하다는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유치원교육과정이나 표준보육과정 모두 그동안 수준을 근간으로 하였다. 수준별에서 연령별 구성 변화 자체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학급이 연령별로 구성되어 있어 내용의 적용이 용이하고 연령별 발달 특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연령별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누리과정 제정과정에서는 이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점이 매우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따라 현재의 누리과정은 연령별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무리함이 많다. 제정안을 보면, 연령별로 목적, 목표가 모두 동일하고 내용에서만 연령별 구성의 체계를 다르고 있다. 연령별 교육과정에서 목적이 동일한 것은 타당하겠으나 목표에서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목표의 동일함까지 인정한다 해도 현재 제시된 내용 부분이 연령별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간다. 현재 내용은 서로 다른 내용이라기보다는 같은 내용의 난이도 차이가 대부분이다. 연령별 교육과정이라 할 경우 연령 별로 내용의 수준만이 아니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누리과정의 연령 별 올바른 구성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기대한다.

5. 1일 3~5시간 기준 편성의 의미

5세 누리과정에서와 같이 3, 4세 누리과정도 1일 3~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누리과정은 재정 지원이 함께 하는 정책이며, 유아의 발달특성에 비추어 볼 때 기관에 머무는 시간은 3~5시간이 적절하므로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OECD 국가 대부분 3~5세 유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이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프랑스나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 오후까지 재정지원을 하지

*

만 이는 복지수준이 매우 높은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

3, 4, 5세 누리과정이 1일 3~5시간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종일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에서는 1일 3~5시간 기준 편성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염려가 된다. 누리과정은 오전 3~5시간의 내용과 기준으로 편성되었지만, 오후에는 누리과정과 관계없는 특별활동이나 별도의 활동만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될 것이다. 유치원의 방과후과정이나 어린이집의 보육 프로그램에서도 유아에게 적합한 교육이란 국가수준에서 공동 고시한 누리과정과 주로 오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다. 오후 시간에는 유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휴식하면서 누리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아들이 관심을 보이는 발달에 적합한 내용과 방법으로 접근하는 분야의 특성화된 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 기관의 교원 확보정도나 지역 특성 및 유아와 학부모 요구 등을 고려해서 오후에는 다양한 방과후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오후에 제공되는 방과후과정이나 보육프로그램에서는 누리과정의 심화확장이나 연계된 활동이 가장 바람직하며, 무문별한 특별활동프로그램들이 유아의 발달을 저해하지 않도록 3~5시간 기준의 의미를 해설서나 지침서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6. 3, 4세 누리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 및 표준보육과정과의 관계

3, 4세 누리과정의 고시과정에서 누리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 및 표준보육과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의 경우 3, 4세 누리과정이 확정되면 대상 연령인 3, 4, 5세 모두 누리과정에 해당이 된다. 이 경우 유치원교육과정이 곧 누리과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누리과정에 포함되지 못한 일부 내용(추구하는 인간상이나 편성운영에서 시·도, 지역교육청, 유치원 부분의 내용)을 포함한 것이 유치원교육과정인지 의문이 간다. 표준보육과정의 경우도 0-2세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3-5세 부분은 누리과정 이외의 다른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지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교육과정의 경우 현재의 유치원교육과정을 모두 없애고 누리과정으로 하기에 는 무리함이 있다. 누리과정이 교육과정의 기본 체계를 갖추어 가고자 하였지만 아직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간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유치원 교육과정은 전체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체제와는 큰 괴리가 있다. 표준보육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존재하며, 행정체제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어찌할 수 없이 편성운영이나 지향점 등의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일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각자 맞춘 것이 유치원교

육과정이나 표준보육과정이라 할 경우, 누리과정 제정의 의미가 없고 또 다시 공통과정으로서의 본질과 그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모두 3, 4, 5세는 누리과정 그 자체만으로 동일하게 고시하고, 각 기관의 특성이 서로 달라 누리과정에 포함되지 못한 내용은 부처별 별도의 지침으로 제시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7. 3, 4세 누리과정 운영의 지원체제

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제정 뿐 아니라 이를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지에 대한 체제정립이 중요하다. 특히 유아기 교육이나 보육은 정해진 교과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의 역량에 따라 실제적인 운영의 질적 편차는 매우 커질 수 있다. 누리과정 도입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의 보장과 유아교육·보육의 질 향상은 자질 있는 교원확보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문제는 5세 누리과정 제정 때에도 논의된 바 있다. 아마도 이번 3, 4세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서도 5세 누리과정 때와 같이 해설서, 지침서, 지도서 및 프로그램 개발과 교사연수가 실시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방법으로 질적인 누리과정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히 누리과정운영에 대한 장학이나 컨설팅 체제가 마련되어 지속적으로 교사의 수준과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성 신장과 더불어 누리과정의 질 향상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유치원 이든 어린이집이든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격 및 자질 향상 방안이 처우개선 방안과 함께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8. 기타 세부적인 사항

3, 4세 제정(안)에서 수정이나 검토가 필요가 생각되는 세부내용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1) ‘교육·보육’으로 분리된 용어는 누리과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누리과정’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2. 운영 ⑥ 교사 재교육을 통해서 교육·보육 활동이 개선되도록 운영한다.

→ 교사 재교육을 통해서 누리과정이 개선되도록 운영한다.

가. 누리과정 운영 평가 ④ 교육·보육 환경이 유아의 발달특성과 활동의 주제, 내

*

용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누리과정 운영 환경이

2) 난이도, 문구수정. 위치이동 등

□ 1. 신체운동·건강

-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신체 조절하기 -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조작 운동을 한다. →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을 한다'의 내용 안에 포함
-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자발적으로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운동능력의 차이를 이해한다. → (4세)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운동능력의 차이에 관심을 갖는다.
- 건강하게 생활하기: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기 - 손과 이를 깨끗이 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 손과 이를 깨끗이 하는 습관을 기른다.

□ 2. 의사소통

- 듣기: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3, 4, 5세 모두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즐기기에 국한되어 '이해하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음)
→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즐기기
- 읽기: 책 읽기에 관심 가지기 - 4세 책 보는 것을 즐긴다.
→ 책 보는 것을 즐기고 소중하게 다룬다.

5세 누리과정과 3, 4세 누리과정 제정은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발전에 커다란 획을 긋는 일이다. TF 위원의 엄청난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고 귀한 씨앗이 되어 앞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현장, 학부모, 학계 구성원 모두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가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에 대한 토론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정부는 2012년 1월 18일, 2012년 「5세 누리과정」의 전격적인 시행에 이어 2013년부터 「3, 4세 누리과정」을 도입·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3, 4세 누리과정」은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의 후속조치로서 추진되는 것으로 2013년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 유아는 하루 3~5시간 동안 국가가 제시한 공통과정에 따라 배우고 활동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부터 육아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보육과 유아교육 분야의 학계 연구자 및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직원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TF가 합의한 만 3, 4세 누리과정(안)을 오늘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해당부처 및 육아정책 연구소 등 그동안 이 과정에 참여한 TF의 각고의 노력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토론자는 2011년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으로부터 ‘5세 누리’과정을 탄생 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논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3, 4세 누리과정」의 제정(안)을 존중하면서 누리과정 구성 등과 관련한 몇 가지 내용과 「3, 4세 누리과정」의 효과적이고도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 고려 할 요건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1. 만 3, 4세 누리과정의 구성

가. 「3, 4세 누리과정」과 「5세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목적 및 목표 서술

오늘 발표된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이 「5세 누리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5세 누리과정」의 구성 틀 특히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구성과 내용범주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유아의 연령에 따른 보육·교육과정의 연계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의 효과적인 적응을 위해서 타당한 접근으로 보인다. 특히 「5세 누리과정」이 기본방향, 목적, 목표만을 전술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은 ‘편성·운영의 중점」을 추가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운영원칙 및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 등의 내용을 제시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된 형태의 국가 「누리과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엽적인 내용에 대한 궁금함이 있다. 즉 「5세 누리과정」의 기본방향과 목적 및

*

목표가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의 그것으로 대체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의 구성방향 및 목적과 목표의 서술을 보면 3~5세를 대상으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짐작된다. 만일 그렇다면 이의 사실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3, 4세 누리과정」이 시행되면 「누리과정」이라는 용어를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를 위한 국가의 보편적인 과정을 지칭하는 의미로 우리 사회 전반이 받아들일 것이므로 「3, 4세 누리과정」과 「5세 누리과정」의 기본방향과 목적 및 목표를 달리 기술해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유아를 위한 보편적인 과정인 「누리과정」에 유아의 연령범주를 초월하여 국가의 철학과 이념이 구성방향, 목적과 목표, 운영과정, 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소소한 의견이지만 구성방향에서 “가,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에서 질서, 배려, 협력 등이 기본생활 습관을 수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가, 기본생활습관과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서 “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에서 서술의 순서를 영유아 발달연령에 따라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바꾸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된다.

나. 만 3세 유아에 대한 과도한 교육 노출 가능성

「3, 4세 누리과정」은 「5세 누리과정」과정과 마찬가지로 1일 3~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된다. 이 경우 어린이집 종일반에 다니는 만 3세 유아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하루 3~5시간씩 비교적 구조화된 교육상황에 노출되는 것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종일반 유아의 경우 최대 하루 5시간 누리과정을 하고 외국어 등의 유아 학습과 관련된 특별활동에 참여할 경우 구조화된 교육상황에 노출되는 시간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만 3세 유아는 양적으로 볼 때 초등학교 1학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교육적인 상황에서 보내게 된다.

유아기는 급격한 발달적 변화가 이루어져 연령에 따른 발달차이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동일연령 내에서도 발달수준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유아기의 발달특성 때문에 유아 개인의 발달상황 및 발달요구가 이들과의 활동 및 교육과정에서 중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연령과 발달수준이 동시에 고려된 보육·교육과정을 모색해 왔다. 「3, 4세 누리과정」이 기본적으로 유아의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하고자 하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4, 5세와 동일한 내용범주와 내용의 틀 속에서 일부 내용의 수준을 낮추거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구성방식을 통해서 3세 유아의 발달특성이 반영된 누리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종일반 3세 유아의 과도한 교육노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3세에 대한 3~5시간 기준 적용의 타당성,

합리성과 더불어서 특별활동의 양 및 시간 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는 3세 유아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주변세계를 탐색하고 호기심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특히 중요한 시기이므로 향후 「3, 4세 누리과정」활동 프로그램 등이 보다 놀이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누리과정 운영평가와 유아 평가가 유아의 개별적 요구와 필요에 적합한 것이었는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3세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의 한계를 다소나마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 편성 및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준거 간 진술 연계의 필요성

「3, 4세 누리과정」은 편성, 운영 교수·학습방법, 그리고 평가의 개괄적 준거 등을 제시함으로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 운영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교사의 누리과정 실행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편성, 운영, 그리고 교수·학습방법 기준이 누리과정 평가 준거가 될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제시된 누리과정의 편성, 운영, 그리고 교수·학습방법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을 보면, 편성, 운영, 그리고 교수·학습방법에서 제시된 기준이 평가 준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를 보면, 편성기준의 “다, 유아의 발달 특성 및 경험을 고려하여 놀이를 중심으로 편성한다.”와 교수·학습 방법의 “가, 놀이를 중심으로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의 내용이 누리과정의 운영평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교수·학습방법의 “사. 개별 유아의 관심과 흥미, 발달이나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유아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학습하도록 한다.”도 누리과정의 운영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누리과정의 운영평가에 “2) 누리과정의 운영내용 및 활동이 유아의 발달수준과 흥미 요구에 적합한 지를 평가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이것이 유아의 개별적 관심과 흥미인지 유아의 연령에 따른 관심과 흥미인지가 모호하다. 만일 교수·학습방법에서 명시된 것과 동일한 ‘개별 유아’에 대한 것이라면 표현을 ‘개별 유아’로 수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구의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 곳도 있다. 누리과정 운영평가 “1) 누리과정의 운영내용이 5개영역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편성·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한다.”는 “~운영내용이 ~ 운영되었는지~”가 반복표기 되므로 “1) 누리과정이 5개영역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편성·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한다.”거나 “1) 누리과정의 운영 내용이 5개영역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 누리과정 운영 및 유아평가에 대한 세심한 접근

「3, 4세 누리과정」은 누리과정 평가와 유아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의 목적

은 누리과정 운영의 기본 방침을 구체화하고 운영기관 간 편차를 줄이며 누리과정 시행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따른 평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수반되는 것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누리과정 평가가 자칫 성과평가 혹은 유아 성취평가로 이해되어 유아성취를 높이기 위한 과도한 경쟁을 낳을까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가기준이 좀 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가령, 3세 유아의 평가기준은 기능, 태도에 대한 평가에는 보다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국의 영유아 기초과정(Early Years Foundation Stage : EYFS)은 5세 유아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참고해 볼 만하다. 평가결과의 보관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요구된다. 유아에 대한 평가 결과가 어떤 형태로든 개별 유아를 서열화 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평가 그리고 유아에 대한 평가 근거자료를 제작하는 데 시간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방식 등의 보다 구체적인 세부 평가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은 2012년 3월 영유아 기초과정(Early Years Foundation Stage : EYFS)을 전면 개정하였고 올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면개정의 배경은 기초과정(Early Years Foundation Stage : EYFS)의 내용과 평가 항목이 너무 많아 영유아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평가를 통해 부모와 교사의 영유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켜 오히려 영유아 발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내용의 영유아 기초과정(Early Years Foundation Stage : EYFS)은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유아평가를 위한 불필요한 지침과 문석작업을 대폭 줄이고 교사는 유아를 보호하고 이들의 발달을 최대화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구체적으로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폭 축소하였고 5세 유아의 발달평가를 간소화하였다. 둘째, 0~5세까지의 유아의 배움(learning)과 발달(development) 목표와 평가를 기존의 69개 항목에서 1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셋째, 유아의 건강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세 개의 발달영역 즉 의사소통과 언어발달(communication and language), 신체발달(physical) 그리고 성격, 사회성, 정서발달(personal,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유아 발달영역은 3개의 기본발달 영역과 4개의 세부영역(Literacy, Mathematics, Understanding the World, Expressive Art and Design)으로 구성되었다. 넷째, 2세 유아를 둔 부모는 방문간호사를 통해 발달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의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취학전 유아가 필요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부모와 교사 등의 관련자간의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원활하고도 명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DE, 2012).

2. 「3, 4세 누리과정」 영역별 내용

「3, 4세 누리과정」은 유아 3세와 4세의 발달차이와 발달수준을 고려하고 있다. 더욱이 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5세 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이 이루어진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영역별 내용 중 몇 가지 수정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신체운동·건강영역

-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의 내용범주 중 3세와 4세 모두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움직인다”가 있는데 3세의 경우 이를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3세의 경우 “~긍정적으로”라는 제한을 두는 것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임을 만들어 보는 것이 3세 유아의 신체활동을 보다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라고 본다.
- ‘신체조절과 기본운동하기’의 내용 중 3세 내용 ‘기본운동하기’에서 ‘제자리에서 몸을 움직여 본다’로 되어 있는데 ‘제자리에서 점프하기, 구르기, 기어가기, 미끄러지기 등 몸을 움직여 본다’로 좀 더 구체적인 움직임의 유형을 포함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본다.
- ‘건강하게 생활하기’ 내용범주에서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기’에서 3세 ‘주변을 깨끗이 한다.’보다는 ‘주변의 장난감 등 물건을 정리한다.’로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으로 보인다.
- ‘건강하게 생활하기’ 중 ‘질병예방하기’에서 ‘질병의 위험을 알고 주의한다.’(3세) → ‘질병의 위험을 안다.’로 수정하는 것이 4세와 5세의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와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질병 등은 유아 개인의 생활습관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3세 유아에게 ‘~주의한다’라는 과제를 요구하기 보다는 교사 등에 의한 환경통제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안전하게 생활하기’ 내용범주 중 ‘안전하게 놀이기’에서 3세와 4세 모두 “TV,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바르게 사용한다.”보다는 “TV와 컴퓨터로 ~”수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안전하게 생활하기’ 중 ‘비상시 적절히 대처하기’ 내용은 3세의 ‘학대, 성폭력, 유괴상황을 알고 도움을 청한다.’의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3세 유아가 본의 아니게 학대상황에 노출되거나 학습할 수 있어 아동윤리 측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유아에 대한 성폭력관련 내용의 노출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3~5

*

세 모두 ‘학대, 성폭력, 유괴상황을 알고 도움을 요청한다.’보다는 ‘유아가 위험상황~’으로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의사소통

- ‘듣기’의 내용범주 중 4세와 5세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한다.’와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의 4세와 5세 ‘전래동요, 동시, 동화를 듣고 우리말의 재미를 느낀다.’가 3세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질문을 주고받는 것은 아주 어린시기부터 중요하다. ‘전래동요, 동시, 동화를 듣고 우리말의 재미를 느낀다.’를 3세에 포함하는 것은 ‘사회관계’의 ‘우리나라에 관심갖고 이해하기’내용범주의 3세 내용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와 풍습에 관심을 갖는다.’의 내용과 일관된 구성체계를 갖도록 한다.
- ‘듣기’의 ‘바른 태도로 듣기’에서 5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주의 깊게 듣는다.’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고 지시에 따른다.’로 수준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토론이 「3, 4세 누리과정」에 대한 것으로 「5세 누리과정」의 내용에 대한 수정 제안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유아가 듣기의 중요한 과제인 ‘주의’를 기울이는 두 개의 채널은 ‘듣기’와 ‘해보기’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5세의 경우 유아가 들은 내용을 실제수행 해 보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 ‘말하기’ 내용범주의 ‘느낌, 생각, 경험말하기’에서 4세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말한다.’를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새로운 알게 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로 수정하여 4세 유아가 새롭게 알게 된 단어를 사용할 기회를 격려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 어느 내용범주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지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말하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시제를 사용하여 말하는 것을 격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4세와 5세 되면 놀이과정에서 가상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을 격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이 상자는 우리 집이야.” 등과 같은 것이다.

다. 사회관계

- ‘나를 알고 소중히 하기’ 내용범주의 4세 ‘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를 ‘자신의 아이디어와 행동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탐색하고 이를 말하도록 격려한다.’로 수정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내용범주 중 5세 '가족구조에 대해 알아본다.'가 5세 유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유아에게 편견과 차별 등의 인식을 발달시키도록 할 우려는 없을지 고민이 필요한 내용으로 보인다.
- 누리과정이 전반적으로 유아의 정서표현 관련 내용이 다소 취약해 보인다. 현재의 영역 분류를 볼 때 유아 정서표현 등과 관련한 내용은 '사회관계'에 포함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의사소통'의 말하기에 일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유아의 다양한 정서를 표현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다. 따라서 '사회관계'의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내용범주의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내용 중 4세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를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내 행동범위를 이해한다'로 수정하면 5세와의 수준에 따른 위계도 보다 체계적이 되고 4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허용되는 다양한 행동양식을 배워 5세가 되었을 때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내용범주의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지내기' 내용 중 '수준을 추가하여 4세와 5세 모두 '공정하거나 불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알아본다.'를 포함하여 유아의 행동규범을 발달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최근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불안정과 조절 및 통제 능력 상실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말한다.' 등과 같은 정서표현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 예술경험

- '아름다움 찾아보기'의 '가작화요소 탐색하기'에서 5세 '여러 가지 재료와 도구를 자유롭게 탐색한다.'는 연령구분 없이 다양한 재료를 탐색하고 활용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므로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 자연탐구

- '수학적 탐구하기'의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형성하기'에서 4세 '기본 도형의 특성을 인식한다.'를 '기본도형의 특성을 인식하고 표현한다.'로 수정하면 일상생활에서의 수학적 탐구 생활을 더욱 격려할 수 있을 것이다.
- '과학적 탐구하기' 내용범주의 5세 '간단한 도구와 기계 활용하기.' 내용의 5세 '변화하는 새로운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갖고 장단점을 안다.'보다는 5세유아의 경우 도구와 기계의 인과관계에 대한 호기심이 발달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새로운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갖고 작동과정을 탐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된다.

*

3. 「3, 4세 누리과정」 시행과정에서 고려할 점

2011년 「5세 누리과정」의 전격적인 시행발표로 인해 「5세 누리과정」의 내용과 프로그램 등을 보급하는 과정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서 몇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2012년 「3, 4세 누리과정」시행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대부분의 관련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작년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3, 4세 누리과정」이 보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3, 4세 누리과정」의 효과적이고도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 작년의 문제들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상기하면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3, 4세 누리과정」활동 프로그램 혹은 지도서는 보육과 유아교육계 공동으로 집필, 제공되어야 한다. 명실공이 우리나라 유아를 위한 보편적인 과정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려면 활동과정과 내용 등을 위한 관련 자료와 정보가 동일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유아의 이용기관과 상관없이 동일한 과정을 제공하려는 누리과정 도입의 본래 목적에 충실한 것이며 「3, 4세 누리과정」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부디 올해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두 담당부처가 논의의 과정을 통해 보육계와 유아교육계가 동일한 활동프로그램 혹은 지도서를 제작·배포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 국민인 유아는 해당부처가 어디인가와 상관없이 단지 우수한 활동프로그램 내지는 지도서를 통해 행복한 유아기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대규모 교사교육이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 「5세 누리과정」 교사교육이 지나치게 대규모로 이루어져 교사교육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상당수에 이르렀다. 향후 일정조정과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운 대규모 집단교육을 올해는 지양할 수 있었으면 한다.

셋째, 오늘 발표된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에는 향후 추진 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그리고 보급을 위해서는 향후 추진 일정이 가능한 빨리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만 3세와 4세로 확대되면서 교육 대상 교사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교사교육기간이 더 오래 소요될 것이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향후 추진 일정이 요구된다.

넷째, 명칭의 문제이다. 2012년 「5세 누리과정」이 만 5세를 지칭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부모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이 기회에 만 3~5세 누리과정으로 표기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다섯째, 누리과정 시행을 위한 현안이 해결되고 제반 여건이 구축되어야 한다. 보육계를 보면, 교사자격 뿐만 아니라 종일제와 특히 어린이집 운영시간 규정,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의 현저한 편차,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만 3세를 누리과정에서 제외하는 문제 등이 있다. 출발점 평등을 내세우고 보육을 국가 투자의 시각에서 접근하며 유아권리를 충실하게 이행해야할 국제적 의무를 갖고 있는 우리정부가 만 3세 유아의 누리과정 수혜 대상자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향후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는데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 수준의 유아공통과정이 우리 정부에 의해 단 2년 내에 마련되었다. 세계 어느 국가도 유아 공통과정을 이렇게 단기간 내에 개발·실행할 수 없을 것이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우리나라 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발달을 위해 꼼꼼하게 누리과정을 마련해 주신 두 관련 부처와 모든 연구진들께 다시 한번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린다. 「누리과정」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질적 성장을 성취하고 이 두 기관이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인 유아의 배움과 발달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는데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토론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에 대한 토론

김영명 서강어린이집 원장

토론에 앞서 우선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보육·교육 과정을 일원화시키기 위해 애쓰신 연구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3, 4세 누리과정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의 내용을 보다 충실히 하고 보육·교육현장에서 적용 하는데 더 큰 장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연령별 내용 구성에 대하여

보육과 유아교육현장에서 대체로 연령별로 반이 편성되어왔으며 이에 맞추어 표준보육과정을 적용하기 위한 보육프로그램 또한 연령별로 구성되어 보급되어왔으나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은 그 동안 수준별 편성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번 3, 4, 5세 누리과정은 연령별로 내용을 구성한다고 한다. 이는 연령별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데는 공감하나 우리나라의 보육과 유아교육이 어떠한 지향점을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아쉬움을 남긴다.

그동안 굳이 현장의 실정과는 달리 수준별 구성을 유지해온 것은 동일한 연령 내에서도 다양한 발달 정도를 보이는 영유아 개별에 대한 배려와 학습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과 양질의 보육과 유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와 같이 혼합연령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급속한 변화와 세계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요구되는 주요한 역량은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 또는 한 사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았을 때 단일연령으로 반을 편성하는 것에 비해 혼합 연령반은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3~5세의 유아는 학교에서와 같이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생활과 놀이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적합한 연령이므로 생활환경도 집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수준별 구성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보육·교

육 과정이 지향해야 할 바를 고려했을 때 수준별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연령별 구성으로의 변화는 아쉬움을 남긴다.

2) 1일 3~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에 대하여

편성·운영의 중점에는 가. 1일 3~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와 바. 일과 운영 시간에 따라 심화 확장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로 되어있다. 그러나 5시간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3~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별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편성 기준이며, 이와 같은 기술이 자칫 보육·교육 현장에서 1일 3~5시간만 누리과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가. 누리과정은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일과 운영 시간을 기준으로 (적절하게) 편성한다로 수정되기를 희망한다.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특별활동이 빠른 속도로 범람하는 가운데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은 보육·교육 현장에서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히려 역활을 해왔다. 따라서 5시간 이상의 종일제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누리과정이 전체 운영시간 동안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분명히 규정되기를 바란다.

3) 다른 연령과의 연계성에 앞서 각 연령의 정체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3·5세의 누리과정은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인접한 연령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기 이전에 해당 연령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만3세와 만5세 유아는 발달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실감한다. 3, 4세 누리과정에서도 3세의 경우 4, 5세에 비해 빈칸을 많이 두어 3세 연령의 특성을 고려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5세와 동일한 내용범주와 내용을 취하면서 그 중 일부를 빼는 정도로 누리과정이 연령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는 고려해보았으면 한다.

연계성을 고려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연계성을 고려했을 때 전 연령에 걸쳐 논리 정연하고 일관성 있는 내용 체계가 수립될 수 있다고 생각되나 보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보육교사나 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각 연령의 발달적인 특성을 보다 주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적절한 보육·교육과정을 마련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즉 누리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연령에 맞게 활동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균형 있는 배분이 우선이냐가 고민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수·학습 방법에서 나. 유아의 흥미를 중심으로 활동을 선택하고 지

*

속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으며 라. 유아와 교사, 유아와 유아,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평가에서는 1) 누리과정의 운영 내용이 5개 영역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편성·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한다고 되어있으며 그런가하면 2) 누리과정의 운영 내용 및 활동이 유아의 발달수준과 흥미·요구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고도 되어 있다.

그런데 3세 유아들이 보육실에서 자발적으로 많은 흥미를 보이는 영역 활동은 역할 영역과 쌓기놀이 영역, 미술 영역이 두드러지며 수·과학 영역과 음률 영역의 선호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러한 지점에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교사들의 고민이 있다. 따라서 각 연령의 발달적 특징을 고려하여 아이들에게 유익하면서도 즐겁고 행복한 몰입의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누리과정이 만들어 지기를 희망한다.

4)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통합적으로 기술되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신체 인식하기’의 내용범주에서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가 있는데 3세는 ‘신체 각 부분의 명칭을 알고, 움직임에 관심을 갖는다’ 4, 5세는 ‘신체 각 부분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움직인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신체를 움직이는 가운데 경험하는 내용이므로 3세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이 되어야 하는지가 명료하게 와 닿지 않는다.

그런가하면 ‘안전하게 생활하기’의 내용범주에서 ‘TV, 인터넷, 통신기기등을 바르게 사용한다’가 3, 4, 5세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기도 하다.

세부내용 중에는 비슷한 내용을 구분해 놓았다고 보이는 것도 있고, 어떤 내용은 3, 4, 5세가 동일하게 되어있는 것도 있는데 누리과정을 적용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차이를 두고 적용해야 하는지, 또한 그러한 차이를 연령에 따라 인위적으로 두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당혹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구별이 애매하거나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통합적으로 기술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5) 누리과정 적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고려할 점

(1) 휴식 기간 제공을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

여름의 7월, 8월과 겨울의 12월, 1월에는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에 의거하여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편성·운영의 중점) 일상을 탈피하여 물놀이, 전래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하거나 늘 비슷하게 짜여진 일상과는 달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 왜 학생들보다 훨씬 어린 영유아가 생활하는 어린이집에서는 1년 열두

달 늘 같은 패턴으로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가지게 된다. 7, 8월과 12, 1월은 무덥거나 추우며 교사들의 휴가가 있는 달이다. 어린이집의 영유아에게도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의 변화와 충분한 놀이와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있기를 바란다.

(2) 누리과정을 근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보육과정의 운영은 표준보육과정의 적용과 평가인증의 실시를 통해 많은 긍정적 변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태유아교육, 발도르프, 레지오에밀리아, 프로젝트 접근법, 몬테소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다소의 제약이 되어왔다.

누리과정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자신들이 지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를 권위 있는 관련 학회와 전문가가 인정하는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3) 부모 교육이 의무화 되어야 누리과정이 바로 선다

보육·교육 비용을 지원받는 모든 부모가 누리과정 및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보육·교육 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 중에는 보육조례에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조항을 넣은 곳도 있다고 알고 있다. 보육·교육 현장에서 누리과정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보육·교육 기관의 변화만이 아니라 부모들의 보육·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다.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에 대한 토론

전호숙 예산유치원 원장

토론에 앞서 유아교육 현장에 몸담고 있는 유치원 원장의 한사람으로서, 먼저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뜻깊은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공청회'의 자리에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5세 공통과정 도입에 따라 지난해 9월 5일 『5세 누리과정』을 제정·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 누리과정이 3~4세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5세 누리과정과 연계한 4세, 3세 누리과정의 개발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육아정책연구소와 협력하여 지난 3월부터 3, 4세 누리과정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이를 뒷받침한 두 부처의 관계자, 그리고 육아정책연구소의 노력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많은 논의의 과정을 거쳐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합의한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이므로 당연히 합의안 자체를 존중하면서 오늘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은 교수, 원장, 교사, 학부모의 시각에서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되는 관계로 본 토론자는 유치원 원장 측면에서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을 가지고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발표를 해 주신 이영 소장님께서 육아정책연구소 제 3대 소장님으로 취임한 이후 3, 4세 누리과정 TF위원장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신 것으로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발표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3, 4세 누리과정의 영역과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금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5세 누리과정의 기본적인 방향과 강조점을 가능한 한 유지하였고,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 구성과 내용 범주는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단, 내용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체계와 맥락을 고려하여 명칭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하였으며, 5세와 3, 4세간의 차별성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세부 내용을 일부 조정한 점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신체운동·건강 영역의 내용범주 중 '신체 인식하기'에서 감각능력 기르기

와 감각기관 활용하기 내용을 '감각능력 기르고 활용하기'로 통합 한 것과 사회관계 영역의 내용범주 중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에서 '가족 협력하기'의 5세 세부내용을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함을 알고 실천한다.'처럼 간결하게 명료화 한 점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체운동·건강영역의 내용범주 중 '건강하게 생활하기'에서 '건강한 일상생활하기' 세부내용 중에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라고 한 것은 3세, 4세 세부내용으로는 적당하나 학부모의 요구와 현장에서 실천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규칙적으로 잠 또는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로 5세 세부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술경험 영역에서 5세 누리과정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다듬은 것이 바람직하며 순서 바뀐 것 또한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내용범주 '아름다움 찾아보기' 중 '움직임과 춤 요소 탐색하기' 내용에서 '움직임과 춤의 모양, 힘, 세기, 빠르기, 흐름 등을 탐색한다.' 5세 세부내용을 '움직임과 춤의 모양, 힘, 빠르기, 흐름 등을 탐색한다.'로 '세기'를 빼 것과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 내용에서 '자연과 사물에서 색, 질감, 모양, 공간 등을 탐색한다.' 5세 세부내용을 '자연과 사물에서 색, 모양, 질감, 공간 등을 탐색한다.'로 바꾸어 간결하게 다듬은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술경험 내용범주 '예술적 표현하기' 중 '극놀이로 표현하기'내용에서 3세 세부내용은 빠져있는데 유치원 현장에서 3세 또한 이미 극놀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소품, 배경, 의상 등을 사용하여 협동적으로 극놀이를 한다.'의 4세 내용을 수준을 조금 낮추어 '소품, 배경, 의상 등을 사용하여 극놀이를 해본다.'로 추가했으면 합니다. 특히 내용 범주 '아름다움 찾아보기' 중 '가작화 요소 탐색하기' 내용은 5세 세부내용에도 없는 내용이 3세, 4세에 들어갔는데 꼭 다뤄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삭제되었으면 합니다.

자연탐구 영역은 현장에서 적용할 때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5세 누리과정 내용이 변경된 것이 없고 누리과정 세부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일선 현장에서 잘 적용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3, 4세 누리과정을 제정(안)을 보고 아쉬운 점을 네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1969년부터 시작된 유치원교육과정이 2013년부터 시행될 3, 4세 누리과정 제정을 앞두고 있지만, 그동안 유치원 교육과정의 성격(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명시해 왔던 것이 누리과정 제정(안)에서는 누락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5세 누리과정이 고시되었을 때에도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은 관계로 현장에서는 교육과정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한 이 누리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5세 누리과정 지도서를 받아 보고, 또 실제로 지도서를 사용하면서 누리과정이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육활동으로 실현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즉, 지도서의 성격 및 구성 방향에 근거한 교육활동의 구체적인 전개 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각 생활 주제별로 교육활동의 목표 진술에서 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기존 유치원교육과정의 운영 지침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에서도 여전히 누리과정의 성격이 교육과정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공통과정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사용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유치원 현장 교사들이 새로운 3, 4세 누리과정을 전개하는 데 혼돈과 모호함을 가지지 않도록 유치원의 교육적 특성이 명확하게 반영된 3, 4세 누리과정 지도서가 개발·보급되어 유치원 교육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이 5세 누리과정과 같이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둘째로 누리과정에서 구성방향은 언급되었지만 ‘추구하는 인간상’이 빠져있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는 유치원을 나오건 어린이집을 나오건 모두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는 것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또한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모두 적용하는 것이므로, 취학전 단계에서 동일하게 이후의 학교급과 연계되도록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어린이집에서도 누리과정을 통해 공통의 교육을 실현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을 명시하고, 누리과정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로 편성에서 ‘1일 3~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지만 하루 중에 3~5시간만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5세 누리과정 해설서에 언급한 것처럼 ‘1일 오전의 3~5시간으로 편성한다’로 명료화 했으면 합니다. 또한 연간 수업일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초등학교 중 주 5일제 전면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수업일수가 190일로 제정된 것처럼 누리과정이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다면 반드시 연간 수업일수를 언급해야 함이 마땅하나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았기에 이 또한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누리과정 제정(안)에 가장 주목할 만한 편성·운영의 중점이 추가된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편성, 운영에 관한 시도교육청의 지침 내용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학급편성에 관한 사항, 환경 구성에 관한 사항, 누리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와 질 관리에 관한 사항, 부모교육 및 참여에 관한 사항, 특수아,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에 관한 사항 등 과 교육지원청의 역할인 장학자료를 작성·제시하는 일,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일, 장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일 등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위 네 가지가 누리과정 해설서 또는 각 부처의 행정체제에 맞게 지침으로 반드시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3, 4세 누리과정의 성공적인 실행은 혼합연령 학급으로 운영되는 것을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소시켜주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혼합연령 1학급으로 운영되는 농어촌 병설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것 뿐 아니라 혼합연령 1학급 교사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주는 정책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마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최대한 고려되어 보다 개선된 최종안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에 대한 토론

김소영 동아유치원 교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 5세 누리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동아유치원 교사 김소영입니다. 우선 누리과정 제정에 애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만 5세 누리과정을 직접 지도하면서 느낀 점에 기초하여 이번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에 대한 몇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누리과정의 '성격'입니다.

유치원에서는 2011년까지 유치원교육과정을 근거로 교육내용과 활동을 구성해 왔습니다. 유치원은 학교이므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 누리과정으로 바뀌면서 그 교육과정의 성격이 모호해졌습니다.

저는 누리과정이 유치원교육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당연히 교육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통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유치원 교사 입장에서는 교육활동의 기반이 모호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저뿐만이 아니라 유치원 교사라면 모두가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분명 누리과정은 교육과정이고 영어로도 'curriculum'이라고 하는데 교육과정이라고 성격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의무교육에 준하는 무상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이든, 무상교육이든 교육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요? 공통과정이라고 표현된 누리교육과정의 성격을 명확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3, 4세 누리과정 고시문에서 다루기 어렵다면 해설서와 지침서에서 교육과정의 성격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5세 누리과정에서처럼 이를 현장의 활동으로 적용하는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에서 유치원의 교육활동은 교육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다양한 자료 제공에 목말라 했던 유치원 현장의 우리 교사들은 풍부한 자

료와 활동을 제공해주고 있는 5세 누리과정 지도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3, 4세 누리과정 지도서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더 풍부하고 질 높은 지도서가 누리과정의 모호함을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누리과정 '내용의 양'입니다.

만 3세 유아들에게는 하루 3시간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번 누리과정의 내용이 너무 많아 3시간에 소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07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는 연령별이 아니라 수준별이었기 때문에 3시간의 활동을 구성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누리과정은 연령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또 세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과정에 명시된 세부 내용들은 해당 연령에서 꼭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세부 내용을 1년 안에 다 다루어야 한다면 활동에 내실을 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교육과정 안에 일상생활이나 가정에서 형성해야 하는 기본적인 일상에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교육활동으로 구성하고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신체운동·건강영역에서 '바른 배변 습관을 가진다.'(만 3~4세 누리과정)라든지,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기른다.'(만 5세 누리과정),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만 5세 누리과정) 등은 어떻게 교육활동을 구성하고 평가해야 할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누리과정의 '난이도'문제입니다.

이번 누리과정은 2007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 비하여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운동·건강영역의 만 3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서술어가 '~에 대해 안다.'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만 3세에게 너무 지식을 강조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또한 의사소통영역에서 쓰기 부분 역시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2007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서는 '말이나 생각을 글로 옮길 수 있음을 안다.'가 1수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만 4세 누리과정에서는 '글로 옮길 수 있음을 안다.'의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나 글자로 표현한다.'입니다. 이는 유치원 유아에게도 글자를 가르치라는 말로 너무 지식에 치중하여 유아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쓰기는 '쓰기에 관심가지기'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안에 포함해도 될 것 같은 항목인 '쓰기 도구 사용하기'를 따로 빼내어 쓰기를 강조하고 반복하는 느낌이 들어

쓰기를 더 치중하여 가르쳐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교육과정은 개별화 교육이기에 유아의 쓰기에 대한 개인차를 두고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관계 영역에서도 만 3세 유아에게 ‘나와 친구의 의견에 차이가 있음을 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과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등은 접근해 가기 어려운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만 3, 4세 누리과정의 내용을 보면서 교사 입장에서 드는 몇 가지 의문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2007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서 다루었던 ‘경제교육과 통일에 대한 교육’이 빠져있고 그나마 경제교육이 ‘지역사회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에 들어 있습니다. 내용에는 ‘돈이 필요하고 돈의 쓰임새를 아는 것’ 정도입니다. 경제교육이 돈에 관한 교육이긴 하지만 2007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서 다루었던 물건 아껴쓰기, 재활용하기(만 5세 누리과정에 자원사용으로 포함되어 있음), 필요한 물건 계획해서 사보기가 유아들의 수준에 더 적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중요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탐구 영역에서 보면 ‘생각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태도와 능력뿐 아니라 문제해결력 부분이 첨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일선의 교사들입니다. 목표나 내용의 진술이 모호하거나 구체적인 교육활동으로 연계하여 교육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현장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기 힘듭니다. 현장에서 직접 실행해야 하는 저희 교사의 의견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은 명실 공히 교육기관입니다. 저 역시 학교체제를 갖춘 유치원의 교사라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모든 학부모에게 유치원은 학교이고 이곳에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으로 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자신 있게 말해왔습니다. 따라서 누리과정도 공통의 교육과정이라고 성격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에 대한 토론

조운정 한전빛사랑어린이집 교사

「5세 누리과정」이 현장에 시행된 지 어느덧 4개월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교사로서 이원화 되어 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과정이 「5세 누리과정」으로 통합되어, 만 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공통과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며, 교사로서 사명감도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현재 「5세 누리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의 시각에서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1.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의 기본틀

- 1) 3, 4세 누리과정의 영역과 내용 구성을 보면, 현재 빠르게 자리잡아가는 5세 누리과정의 기본방향과 강조점을 가능한 유지하고 있으며,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영역의 틀이 유지되고 있어 또다시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는 느낌이 아니라, 5세 누리과정과 연결하여 용이하게 수용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3, 4, 5세의 세부 내용 수도 적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2) 구성방향을 보면 '라. 만 3~4세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한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누리과정을 통해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유아와 그들이 속한 미시·거시적인 환경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발달만이 아니라, 영유아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배경과, 지식 및 기술과 관련된 학문적 근거 등도 고려되었음이 언급되었으면 합니다.
- 3) 편성·운영의 중점에서 운영의 세부내용 중 '가. 연안, 월간, 주간, 일일계획에 의거하여 운영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누리과정 운영의 첫 번째 제시로서는 너무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차라리 '누리과정의 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준하여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교사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운영의 원칙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평가부분에서도 '...과정의 계획안 분석'이라는 용어와도 통일성을 기할 수 있어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

- 4)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 공통으로 실시되고, 만 5세뿐 아니라 3, 4세까지 확대되는 만큼, 누리과정 운영 및 유아 평가 부분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리과정이 전인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누리과정이 잘 운영되는가에 대한 공통된 척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평가 결과를 다시 반영하여 그 다음해, 다음 주제 등의 누리과정 운영에 반영되는 것에 대한 교사 교육도 매우 필요합니다. 또한 평가척도는 현장의 교사들에게 너무 복잡하기 않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 5) 특히 평가에서 보면, 포트폴리오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 교사들이나 원장들의 하루 시간을 보내는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포트폴리오는 실제 현장에서 거의 대부분 유아 작품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고집하기보다, 유아 행동 관찰에 덧붙여 개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유아의 수행 정도를 판단하는 간단한 방법들을 형편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사들은 누리과정의 우수한 운영보다는 ‘평가를 위한 운영’을 하게 되어, 또 다른 과제와 짐에서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 6) 현재 5세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고, 각각이 방대한 양의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몇 주제를 살펴보는 않았으나 비슷비슷한 활동들도 많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같은 연령의 유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참고자료가 많다면 누리과정을 실행할 때 반갑고 기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슷비슷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고, 거의 비슷한 주제로 연간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 세금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오히려 어린이집 프로그램과 유치원지도서 두 가지를 합하여 제공해 준다면 교사들로서는 더 우수한 내용으로 꼼꼼히 자료를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 4세 누리과정이 제정이 된 후에도 만 5세처럼 국가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 3, 4세 프로그램은 중복적이지 않으면서, 질적으로 우수한 내용을 함께 개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7) 만 5세의 누리과정의 경우 혼합연령을 위한 연령연계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해주셔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5세를 중심으로 한 혼합반 프로그램이어서 3,4세 누리과정이 제정되는 만큼 이를 반영하여, 혼합연령반의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4세 혼합, 4, 5세 혼합, 3, 4, 5세 혼합의 다양한 혼

합 연령이 따로 따로 고려되어야 하며, 혼합연령 반을 위한 운영지침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또 3, 4세 누리과정을 기초로 다문화, 저소득, 장애 등 다양한 환경에 있는 유아들을 고려한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8) 3, 4세 누리과정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5세 누리과정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5세를 함께 수정되거나 추가한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성방침에서 언급되었으나, 만2세 표준보육과정과 만3세 누리과정의 연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를 꼼꼼히 살펴주어야, 보육현장의 교사들이 3, 4세 누리과정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 9) 제가 처음 5세 누리과정을 접했을 때, 현저히 줄어든 기본생활 관련 내용범주와 내용을 보고, 유아기에 길러야 할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 3~5세 유아기는 기본생활습관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주요과업 중 하나이고, 최근에 이러한 측면들이 가정에서 잘 형성되지 않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뒤의 신체운동·건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습니다.

2. 「3-5세 누리과정」 제정(안)의 내용범주 및 내용 관련

1) 신체운동·건강 영역

- ①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바깥에서 신체활동하기의 만 4, 5세 세부내용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신체활동에 참여한다.’가 추가되었는데, 이동운동, 비이동운동, 조작운동, 기구를 사용한 운동에 혼자 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중복되는 사항이라 여겨져 새롭게 추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② 건강하게 생활하기 - 몸과 주변을 깨끗이 생활하기에서 3, 4세는 ‘손과 이를 깨끗이 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라는 세부내용이 있지만 5세는 손, 이와 관련된 세부내용이 없고 ‘스스로 몸을 깨끗이 하는 습관을 기른다.’라고 세부내용이 수정되어 있습니다. 현행의 만 5세 누리과정에서 ‘손과 몸과 이를 깨끗이 하는 습관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의 내용처럼 몸뿐만이 아니라 손과 이도 다시 추가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

- ③ 또한 최근에 (속)옷을 스스로 입거나, 벗은 옷을 제자리에 두거나, 옷이 더러워질 때 갈아입으려 한다거나, 양말을 혼자 신을 수 있거나, 신발을 가지런히 제자리에 두는 내용이 3~4세에는 중요한데 이러한 내용이 없으며, 단지 ‘날씨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날씨와 상황에 옷을 입는 것은 오히려 성인이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배변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덧붙여서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잘 안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2) 의사소통 영역

- ① 쓰기 - 만 3세는 쓰기도구 사용하기와 관련된 세부내용이 없는데, 유아의 문해 발달에서 자발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는 풍부한 환경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영역(역할놀이영역이나 쌓기 영역 등)에서도 다양한 쓰기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 3세에서도 ‘여러 쓰기도구에 관심을 갖는다’는 세부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사회관계 영역

- ①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 가족과 협력하기의 만 5세 세부내용 중 ‘다양한 가족구조에 대해 알아본다.’에서, 한부모, 다부모, 조손가정 등 유아가 처한 다양한 차이를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다양한 가족구조’를 지식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유아들에게 꼭 필요하다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존중하는 것은 이미 ‘나와 다른 사람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존중한다.’라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구조에 대해 알아본다’는 삭제되어도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 ② 사회에 관심 갖기 -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의 기존의 만 5세 세부내용에서 ‘옳고 그름을 이해한다.’가 삭제되었는데, 만 5세에서 부모나 또래 친구들과 함께 행동의 옳고 그름을 이해해보는 것이, 유아의 인성발달의 토대가 될 것이므로 기존처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③ 사회에 관심 갖기 -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에서 ‘자연과 자원의 소중함을 안다.’와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아껴 쓰는 방법을 알아본다.’라는 세부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사회관계 영역보다는 ‘자연탐구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적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4) 예술경험 영역

- ① 아름다움 찾아보기 -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에서 기존의 만5세 세부내용이었던 '여러 가지 재료와 도구를 자유롭게 탐색한다.'는 부분도 삭제되었는데, 만 3-5세 모두 다양한 재료와 도구에 호기심을 느끼며 충분히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누리과정에서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② 예술적 표현하기 - 미술활동으로 표현하기에서 만4,5세 세부내용의 '미술활동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다양하게 사용한다.'라는 표현은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미술활동에 사용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의도를 분명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 ③ 예술 감상하기 - 다양한 예술 감상하기에서 '다른 문화의 예술작품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세부내용과 관련하여, 다른 문화의 예술작품에 관심 갖는 것보다 다양한 예술작품에 관심을 갖고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음악, 춤, 미술작품, 극놀이 등을 듣거나 보고 즐긴다.'라는 세부내용에 이미 이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여겨져서 '다른 문화의 예술작품...'의 세부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5) 자연탐구

- ① 과학적 탐구하기 - 본 구성방향 '다.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라고 되어있어 자연에 관련 지식보다는 태도를 더 중요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탐구 영역의 실제 내용에서 보면, 내용범주는 '과학적 탐구하기'인데 내용은 모두 '물체와 물질 알아보기'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 '자연현상 알아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도 역시 '관심 있는 동식물의 특성과 성장과정을 알아본다.', '생명체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에 대해 알아본다.' 등과 같이 탐구적 과정보다 '알아본다'라는 지식 관련 내용이 강조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유아기는 지식 습득을 목적이기보다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는 성향을 기르는 것을 지향해야 하므로, '알아보기' 보다 '탐색하기', '존중하기' '탐색한다' 등의 용어로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 ② 과학적 탐구하기 -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의 내용에서 세부내용으로 만5세에 '생명체가 살기 좋은 환경과 녹색환경에 대해 알아본다.'가 있는데, '녹색환경' '생명체'이라는 단어가 만5세에게 적용하기에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에 대한 토론

박영선 예담어린이집 학부모

1. 들어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를 셋이나 가진 남부러울 것 없는 학부모입니다. 태어나서 국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일과 스스로 제일 잘한 일이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라면 특정 시기 아이의 진로와 관련해 한번 쯤 고민과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 또한 큰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1년 전 아이를 유치원으로 보내야 할지, 어린이집에 계속 있어야 할지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준비하려면 보육중심에서 교육중심으로 이동이 필요한 시기라는 사회 전반의 인식과 학부모들의 여론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또 직장에 다니는 엄마이기에 종일반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상의 장단점을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다니던 어린이집을 계속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큰아이가 4학년인 지금 당시의 고민을 평가해본다면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될 내용으로 시간만 소비한 것입니다.

지난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교육인 만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수년간 이어져온 학부모들의 고민이 이제 해결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유치원에서의 유아교육과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이 통합되면서 빈부 격차와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한 교육과정을 누리게 되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첫 걸음이자, 누리과정을 적용받는 만 5세 모든 어린이들의 학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무상보육의 첫 단계로 출산과 육아 교육을 망라해 두루 평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만 5세 누리과정을 개발하고 올해부터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신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육아 전문가들, 보육 현장의 원장들과 교사들의 헌신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3, 4세 누리과정」 제정을 위해 오늘 이 공청회 자리를 준비한 육아정책연구소에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2.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

1) 5세 누리과정에 대한 평가 이후 3-4세 과정 충분한 사회적 합의 필요

그동안 아동에 대한 보육과 교육이 오랫동안 이원화된 상황에서 누리과정을 통해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고자 하는 5세 누리과정 도입의 정책적 시도는 높게 평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백년지대계와 같은 중차대한 정책적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토론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이후 시간에 쫓기며 꿰 맞추며 정책을 실현하기 보다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후 시범 운영과 보완을 거쳐 단계적 운영 이후 전국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도입된 누리과정이 중요한 만큼 이를 교육 현장에서 지도할 교사들에 대한 지원, 교사 확충, 제대로 된 환경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해 꼭 도입되어야 할 누리과정이 무리하게 시간에 쫓겨 추진되면 결국 현장 교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추후 누리과정을 추진한 정부 담당 부처와 전문 기관과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평가와 진단을 위해 시행 3개월 단위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평가 토론회도 어린이집, 유치원, 학계, 각계 전문가, 공동 토론 등을 개최해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수정 보완을 거쳤으면 합니다.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수정 보완이 진행되는 동안 3, 4세 누리과정도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교사들과 학부모 민주적 합의를 충분히 거쳤으면 합니다.

2) 누리과정에 구분에 대한 재검토와 분야별 전문가 그룹 자문 필요

보육과 교육 전문가가 아닌 학부모의 입장에서 3-4세 누리과정 제정안의 공통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한 비판과 개선점 제안이 공청회를 앞둔 며칠 만에 한두 번 읽고 나서 바로 나올 수는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기본' 식견이 없는 상황에서 본 인상평에 그치는 제안을 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5개 과정에 대한 재검토는 5세 누리과정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듯이 3-4세 과정에서는 한층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한국 속담도 있습니다. 만 3-4세에 형성된 '기본 생활 습관'은 평생 아이의 삶을 지배하는 품성이자, 사람의 됨됨이로 아이의 우명을 좌우할 만큼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능이 높아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예술적 재능까지 타고

나 잘 가꾼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기본 생활습관에 따라 됴됨이가 안됐거나 부족하다면 어디에서건 사회 구성원으로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집 아이의 경우 만 3세로 기본 생활 습관에 대한 지도가 한층 더 필요해진 시기입니다.

먹고, 입고, 자고, 씻고, 싸고, 정리하고, 질서를 지키고, 인사하는 것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할수 있어야 하는, 점차 그렇게 되어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는 어린이집에서는 혼자서 먹고, 벗고 하지만 집에서는 엄마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가정 교육을 통해 기본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과 어린이집에서 배워온 것을 실천하면서 자립하는 교육적 효과에 따른 성취감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유아기에 형성된 기본 생활 습관이 결국 사회적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건강하고 민중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누리 과정이 5개로만 구분되어야 있는지, 6개- 7개 과정으로 확대하면 안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5세 누리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 운동 건강'은 '신체와 운동'으로 하고 건강과 안전은 '기본생활 습관' 내용범주로 포함시켜 6개 과정으로 하거나, '신체와 운동', '건강과 안전', '기본생활습관'을 각각 한 개의 과정으로 해서 7개의 과정으로 재편 등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통 과정에 대해서는 기타 의견으로 '예술 경험' 보다는 '문화 예술'이나 '예술 창작'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틀에서 지적한다면 육아교육만이 아니라 각계 각층의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TF 위원 구성을 살펴 봤을 때 육아정책과 아동복지, 육아 교육 전문가들과 교육과 보육의 현장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간사 또한 육아교육 관련 부처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리과정 구분에 따라 보육과 교육 전문가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의사소통'에는 한글 전문가와 미디어 전문가, '예술 경험'은 문화예술 전문가, '자연 탐구'는 수학자나 과학자, '신체 운동'은 체육전문가, 건강은 예방의학 전문가와 음식 전문가, 안전은 소방 안전 전문가 등 분야별 자문 위원을 선임해 10년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탄탄한 누리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3. 마무리하면서

40여년 살아오면서 정부 정책에 의해 특별하게 차별 당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저는 정부정책 대상으로는 정책적 '왕따'를 경험해 본 한 해였습니다. 그것도 이중으로. 08년생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와 2011년생 가정

*

보육을 하고 있는 아이의 엄마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08년생은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고, 또 2011년생 또한 친척한테 아이를 맡기고 있어서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정에서 절대적 보살핌이 필요한 영아를 보육기관에 맡길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은 뒤 정부의 획기적인 출산 장려 정책과 보육 정책으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주변의 칭찬이 오히려 스트레스로 느껴질 만큼 이래서 적용이 안되고, 저래서 적용이 안되는 불편한 시기였습니다. 또 이후 지방 재정이 악화될 수 있어 결국 우리 아이가 지원 대상이 됐을 때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이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정부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그 정책결정에 의해 역차별을 당하는 시민이 있거나 특정 연도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배제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3, 4세 누리과정이 제대로 마련되기 위해서는 우선 5세 누리과정에 대한 평가결과에 근거해서 추진되길 바랍니다. 이로 인해 3-4세 누리과정 시행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이후로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내 아이만을 위한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당장 손해를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후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 모두의 행복한 삶과 교육을 위해....

* 3, 4세 누리과정 발제문에 대해 사전 학부모들의 공유와 토론이 전제되지 않았기에 학부모 전체의 총의나 여론을 확인하지 않은 학부모 대표성이 없는 학부모 개인의 견해를 담은 토론문입니다.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에 대한 토론

주혜연 보라유치원 학부모

사회 가치관의 변화와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관심과 책임은 생애 초기부터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져 지난해 5월에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다니는 초등학교 입학전의 모든 만 5세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해주는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입장에서서는 일정 소득이하인 집에만 주던 교육비를 국가에서 주니 믿기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만 3~4세까지 확대되어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은 국가로부터 22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공정하게 교육받을 기회가 모두에게 제공되어 유아교육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교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도 크게 줄게 되어 학부모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가정의 생활양식 안에서 자유롭게 키우다 각 가정의 교육철학과 의지에 따라 교육기관을 찾게 됩니다. 처음으로 가정이 아닌 다른 집단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아이들이 걱정돼 부모는 가능한 집 가까운 유치원을 우선 선택하게 되고, 유치원의 다른 교육적 환경 등을 유심히 살피게 됩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되며, 원장, 원감 그리고 선생님들의 실력과 자질은 어떤지, 시설은 어떤지 다양한 교육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로 지역사회 내에서 학부모들 사이에 입소문을 탄 교육기관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들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들일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갖는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만 조금 더 나은 교육기관에 보낸다고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텐데 한 명이라도 더 보다 좋은 교육기관에서 혜택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 편차는 있을 수 있으나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은 사회적, 국가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제라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교육 전단계인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교육과 보육 부분도 누리과정이 도입되어 유아기에 있는 우리 귀한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교육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 엄마로서 반갑고 행복합니다.

*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5세 누리과정'이 제도화된 지난해는 우리 아이가 만 2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올해 3세이니 5세와 같은 혜택을 금년에는 받지 못하지만 5세 누리과정이 만 3, 4세까지 확대된다는 2013년, 내년에는 만 4세가 되는 우리 아이도 취학전의 교육적 경험을 강조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한 '누리과정'을 배우게 될 것이라 합니다. 우리 아이도 4세 누리과정을 배우게 되겠지요? 질서, 배려, 협력, 나눔 등의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 등 누리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교육을 통해 유치원에서 4, 5세를 지내고 나면 이제 정말 초등학교에 가서도 큰 문제 없이 적응을 잘 하게 될 것이라 기대되어 안심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오늘 제시된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을 보면, 과연 이 많은 내용을 우리 아이들이 잘 습득하고 배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재밌고 즐겁게 뛰어 놀면서 지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3세는 109개, 4세는 134개, 5세는 139개의 교육과정 내용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아교육·보육계의 교수님들과 현장 선생님들이 함께 협의하여 만드셨다고 하니 3, 4, 5세의 연령별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잘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이 누리과정을 초등학교 교실 수업처럼 책상에 앉혀 놓고 교과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 실행하시겠지만, 그래도 공청회 이후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3, 4, 5세의 유아들에게 적절한 교육의 양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책적인 행정 소관부서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세 누리과정 시행은 5세 유아를 위해 바람직한 교육적 지침과 환경을 마련해주었고,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효과적으로 연계해주는 교육과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오늘 이후 더 수정·보완하여 완성하게 되는 '3, 4세 누리과정' 역시 사회·경제적·지역적 편차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3, 4, 5세 어린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일관되고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만 3~5세까지의 누리과정은 국가수준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 교육 내용으로 하나의 연계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교육 방향을 이끌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을 선진 유아교육으로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누리과정을 고시만 해 놓고, 이후에 운영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 누리과정은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남게 될 것임을 지적하고 싶

습니다.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든지 어린이집에 가든지 똑같은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뒤처지거나 왕따 당하지 않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착하게 성장해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리 과정이 고시되고 시행되게 되면 국가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는지 평가하고, 지원해서 교사를 통해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으로 실천되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계속해서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이 같은 누리과정은 전문가들이 집중작업을 거쳐 3-5세 유아에게 꼭 필요하고, 성취해야 할 내용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을 유아기부터 대폭 강화하도록 구성함은 인성교육이 유아교육의 기본이라고 알고 있는 본질과 목적에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누리과정으로 획일화되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진다면 다양화 시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현장의 선생님께서 누리과정을 좀 더 지역의 특성과 유치원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고 구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누리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질 관리를 함께 해 갔으면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유아와 학부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얻은 성과가 유아교육과 보육에서의 균등한 교육품질 제공, 교육환경의 개선,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으로 연결되어 효과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부록. 5세 누리과정 고시문('11. 9. 5)

제1절 5세 누리과정의 구성

1. 구성 방향

- 가. 만 5세아의 기본생활습관과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 나.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다. 전인발달이 고루 이루어진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 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 마.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주도적인 경험을 강조하고, 놀이중심의 통합과정으로 구성한다.
- 바. 1일 3~5시간의 운영을 기준으로 한다.

2. 목적

5세 누리과정은 만 5세아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과 바른 인성을 기르고,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목표

- 가. 기본운동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 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사용 습관을 기른다.
- 다.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기른다.
- 라.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 마.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을 기른다.

제2절 5세 누리과정의 영역

1. 신체운동·건강

가. 내용체계

<표 1> 신체운동·건강 내용체계

영역	내용 범주	내용
신체운동·건강	신체 인식하기	감각 능력 기르기
		감각 기관 활용하기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신체 조절하기
		이동하며 운동하기
		제자리에서 운동하기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자발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바깥에서 신체활동하기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하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기
		바른 식생활 하기
		건강한 일상생활 하기
		질병 예방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놀이기
		교통안전 규칙 지키기
		비상 시 적절히 대처하기

나. 세부 내용

<표 2> 신체운동·건강 세부 내용

내용범주	내용	세부 내용
신체 인식하기	감각능력 기르기	미세한 감각적 차이를 구분한다.
	감각기관 활용하기	여러 감각기관을 협응하여 활용한다. 감각으로 대상이나 사물의 특성과 차이를 인식한다.

*

내용범주	내용	세부 내용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	신체 각 부분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움직인다.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움직인다.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신체 조절하기	신체균형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자세를 취한다.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을 조절한다. 공간, 힘, 시간 등의 움직임 요소를 활용하여 운동한다.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조작운동을 한다.	
		이동하며 운동하기	걷기, 달리기, 뛰기 등 다양한 이동 운동을 한다.
		제자리에서 운동하기	제자리에서 다양한 운동을 한다.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자발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신체활동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운동능력의 차이를 존중한다.
바깥에서 신체활동하기		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활동을 한다.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하기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을 한다.	
건강하게 생활하기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기	손과 몸과 이를 깨끗이 하는 습관을 갖는다. 주변을 깨끗이 하는 습관을 갖는다.	
	바른 식생활 하기	적당량의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소중히 여긴다. 식사예절을 지킨다.	
		건강한 일상생활 하기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한다. 바른 배변습관을 가진다.
	질병 예방하기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한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날씨와 상황에 알맞게 옷을 입는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놀이기구 사용하기	놀이기구나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한다.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한다.	
	교통안전 규칙지키기	교통규칙을 지켜서 안전하게 다닌다.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한다.	
	비상 시 적절히 대처하기	재난 및 사고 등 비상 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안다. 학대, 성폭력, 유괴 상황을 알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안다.	

2. 의사소통

가. 내용 체계

<표 3> 의사소통 내용 체계

영역	내용 범주	내용
의사소통	듣기	낱말과 문장 듣고 이해하기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
		바른 태도로 듣기
	말하기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기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상황에 맞게 바른 태도로 말하기
	읽기	읽기에 흥미 가지기
		책 읽기에 관심 가지기
	쓰기	쓰기에 관심 가지기
쓰기 도구 사용하기		

나. 세부 내용

<표 4> 의사소통 세부 내용

내용범주	내용	세부 내용
듣기	낱말과 문장 듣고 이해하기	낱말의 발음에 관심을 가지고 비슷한 발음을 듣고 구별한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낱말과 문장을 듣고 뜻을 이해한다.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다.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한다.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	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즐긴다. 전래 동요, 동시, 동화를 듣고 우리말의 재미를 느낀다.
	바른 태도로 듣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주의 깊게 듣는다.
말하기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기	정확한 발음으로 말한다.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여 상황에 맞게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양한 형태의 문장으로 말한다.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적절한 단어와 문장으로 말한다. 주제를 정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이야기 지어 말하기를 즐긴다.

내용범주	내용	세부 내용
	상황에 맞게 바른 태도로 말하기	듣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고려하여 말한다.
		때와 장소, 대상에 알맞게 말한다.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읽기	읽기에 흥미 가지기	읽어 주는 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 읽어 본다.
	책 읽기에 관심 가지기	책 보는 것을 즐기고 소중하게 다룬다. 궁금한 것을 책에서 찾아본다.
쓰기	쓰기에 관심 가지기	말이나 생각을 글로 옮길 수 있음을 안다. 자신의 이름과 주변의 친숙한 글자를 써 본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나 글자로 표현한다.
	쓰기 도구 사용하기	여러 가지 쓰기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쓰기 도구의 바른 사용법을 알고 사용한다.

3. 사회관계

가. 내용 체계

<표 5> 사회관계 내용 체계

영역	내용 범주	내용
사회관계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를 알기
		나를 소중히 여기기
		나의 일 스스로 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표현하기
		나의 감정 조절하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가족과 협력하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지내기
	사회에 관심 갖기	지역사회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우리나라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세계와 여러 문화에 관심 가지기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		

나. 세부 내용

<표 6> 사회관계 세부 내용

내용범주	내용	세부 내용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를 알기	나에 대해 알아본다. 나와 다른 사람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인정한다.
	나를 소중히 여기기	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
	나의 일 스스로 하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한다.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고 해 본다.
나와 다른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표현하기	자신의 감정을 알고 표현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공감한다.
	나의 감정 조절하기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조절한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안다. 가족과 사이좋게 지낸다.
	가족과 협력하기	다양한 가족구조에 대해 알아본다. 가족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 것을 알고 실천한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친구와 협동하며 놀이한다.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지내기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 받고, 서로 협력한다. 교사 및 주변 사람과 화목하게 지낸다.
사회에 관심 갖기	지역사회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우리 동네에 대해 알아본다. 다양한 직업에 관심을 갖는다. 일상생활에서 돈의 쓰임에 대해 안다.
	우리나라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알고 예절을 지킨다. 우리나라의 전통, 역사,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
	세계와 여러 문화에 관심 가지기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해야 함을 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알아보고 존중한다.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행동한다. 옳고 그름을 이해한다. 친구와 어른께 예절 바르게 행동한다.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이나 공공규칙을 지킨다.

*

4. 예술경험

가. 내용 체계

<표 7> 예술경험 내용 체계

영역	내용 범주	내용
예술경험	아름다움 찾아보기	음악적 요소 탐색하기
		움직임과 춤 탐색하기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
	예술적 표현하기	음악으로 표현하기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하기
		미술 활동으로 표현하기
		극놀이를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	통합적으로 표현하기
		다양한 예술 감상하기

나. 세부 내용

<표 8> 예술경험 세부 내용

내용범주	내용	세부 내용
아름다움 찾아보기	음악적 요소 탐색하기	다양한 소리, 악기 등으로 강약, 속도, 리듬 등을 탐색한다.
	움직임과 춤 탐색하기	움직임과 춤의 모양, 힘, 세기, 빠르기, 흐름 등을 탐색한다.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	자연과 사물에서 색, 질감, 모양, 공간 등을 탐색한다. 여러 가지 재료와 도구를 자유롭게 탐색한다.
예술적 표현하기	음악으로 표현하기	노래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전래동요를 즐겨 부른다.
		리듬악기를 연주해 본다.
	리듬과 노래 등을 즉흥적으로 만들어 본다.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하기	신체를 이용하여 주변의 움직임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춤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움직인다.	

내용범주	내용	세부 내용
	미술 활동으로 표현하기	다양한 미술활동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협동적인 미술활동에 참여하여 즐긴다. 미술활동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다양하게 사용한다.
	극놀이를 표현하기	경험이나 이야기를 극놀이를 표현한다. 소품, 배경, 의상 등을 사용하여 협동적으로 극 놀이를 한다.
	통합적으로 표현하기	음악, 움직임, 미술, 극놀이를 통합하여 표현한다. 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창의적인 표현과정을 즐긴다.
예술 감상하기	다양한 예술 감상하기	다양한 음악, 춤, 미술작품, 극놀이 등을 듣거나 보고 즐긴다. 나와 다른 사람의 예술 표현을 소중히 여긴다. 다른 문화의 예술작품에 관심을 가진다.
	전통예술 감상하기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에 관심을 갖고 친숙해진다.

5. 자연탐구

가. 내용 체계

<표 9> 자연탐구 내용 체계

영역	내용 범주	내용
자연탐구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탐구과정 즐기기
		탐구기술 활용하기
	수학적 탐구하기	수와 연산의 기초개념 형성하기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형성하기
		기초적인 측정하기
		규칙성 이해하기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
	과학적 탐구하기	물체와 물질 알아보기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
		자연현상 알아보기
		간단한 도구와 기계 활용하기

나. 세부 내용

<표 10> 자연탐구 세부 내용

내용범주	내용	세부 내용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주변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한다.	
	탐구과정 즐기기	궁금한 점을 알기 위해 비교하기, 예측하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탐구기술 활용하기	나타난 결과에 기초하여 예측하고 적용한다.	
수학적 탐구하기	수와 연산의 기초 개념 형성하기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안다. 수량의 부분과 전체 관계를 안다. 스무 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고 수량을 안다. 구체물을 가지고 더하고 빼는 경험을 해 본다.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형성하기	위치와 방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본다. 다양한 기본 도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한다. 기본 도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구성해 본다.	
	기초적인 측정하기	일상생활에서 길이, 크기, 무게, 들이, 시간 등의 속성에 따라 비교하고, 순서를 지어 본다. 임의 측정단위를 사용하여 길이, 면적, 들이, 무게 등을 재 본다.	
	규칙성 이해하기	생활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성을 알고 다음에 올 것을 예측해 본다. 스스로 규칙성을 만들어 본다.	
	기초적인 자료수집과 결과 나타내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한다.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자료를 다른 기준으로 재분류해 본다. 그림, 사진, 기호나 숫자를 사용해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	
	과학적 탐구하기	물체와 물질 알아보기	주변의 여러 가지 물체와 물질의 기본 특성을 알아본다. 물체와 물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화시켜 본다.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	관심 있는 동식물의 특성과 성장 과정을 알아본다. 나와 다른 사람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 알아본다. 생명체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에 대해 알아본다.
자연현상 알아보기		돌, 물, 흙 등 자연물의 특성과 변화를 알아본다. 낮과 밤, 계절의 변화와 규칙성을 알아본다.	
간단한 도구와 기계 활용하기		생활 속에서 간단한 도구와 기계를 활용한다. 변화하는 새로운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가진다. 편리한 물건이 때로는 해가 될 수 있음을 안다.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작성 후 등록데스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성방향 및 목적과 목표, 편성·운영		
각 영역별 내용	신체운동 ·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기타		